



성도의 벗 6
1971



영감의 메시지

도일 엘 그린

● 책의 성공여부를 그 책의 규격이나 페이지 수나 편집 내용, 색채 페이지의 수량 등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그 책이 독자에게 어떤 일을 해주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잡지가 참으로 감사했다는 편지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 이 작은 지면을 빌어 특별히 하나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폴트레이크에 있는 어떤 와드의 상향회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회원이었고 또 침례도 받았었으나 젊어서 한때는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그가 훌륭한 말일성도 자매와 사랑을 속삭이던 끝에 비록 신전 결혼은 할 수가 없었으나 결국 결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혼 후에 자매는 그의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하였고 다시 교회로 인도하려 하였으나 그는 더욱 교회에 대하여 적대 의식을 갖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밤은, 아이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고 아내는 교회 모임에 참석하러 나가고 있었고 그가 홀로 담배를 피우면서 교회 잡지를 무심히 집어들고 한장씩 넘겨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는 새에 그는 같이 권투 연습을 하는 어느 권투 선수 스파링 동반자에 관한 기사에 정신을 쏟게 되었습니다. 운동에 관심을 가진 그는 그것이 단순한 운동 기사로만 알고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는 어느 개인의 금연기로서 자기의 금연이 얼마나 힘들었으며 그것이 가족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기사를 다 읽고 나서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녀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안개처럼 연기가 자욱하고 담배 재로 더러워진 방안을 둘러 본 다음 니코틴으로 물든 자기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다시는 담배를 손에 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갖고 있던 담배를 있는 대로 모아서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고 그 때로부터 결심한 그대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는 다른 나쁜 버릇도 고치려고 무척 노력했으며 십일조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아내와 자녀를 이끌고 이 세상과 영원에서의 결별을 위하여 주님의 신전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 7 권 제 6 호

순 서

1971년 6월호

■ 권두언 : 교회 잡지—간증의 조력자 조셉 펄딩 스미스.....	1
교회와 교회 잡지 도일 엘 그린.....	3
부름과 해임에 관하여 조셉 에프 스미스.....	6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는 이들에게 히버 제이 그랜트	7
주님께 기회를 조지 알버트 스미스	9
구혼과 결혼 데이비드 오 벅케이	10
우리 주 그리스도 제임스 이 탈메지.....	12
뉴질랜드에서의 기적 롤린 에프 휠라이트	14
예언자가 된 시인 웬데 제이 애쉬튼.....	15
빛나는 순간 루실 씨 리딩 옴김.....	18
엘마의 위대성 로버트 스펜서.....	19
누가 청소년인가?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20
교회가 진리의 독점권을 가졌는가? 존 에이 윌소	23
가정의 밤 조셉 에프 메릴	24
상호 부조회의 조직 벨 에스 스페포드.....	26
소년과 거미줄 노라 앤 리차드슨	28
■ 선교부장 메시지 : 다음 선교부장을 소개합니다. 서 현보.....	30
■ 내외 소식 ■	
■ 진리의 말씀 : 자기 탐구 리차드 엘 이반스	표 4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71년 6월 1일

통권 제71호

발행인 : 서 현 보

편집인 : 홍 무 광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우편번호 110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 가 : 50원

1년 구독료 (송료포함)

국내 450원

국의 선박 5 불

항공 7 불

표지 설명 : 윌리엄 위티커 형제의 그림을 표지로 실었다. 1823년 9월 22일, 초가을 아침의 요셉 스미스 2세와 그의 부친의 모습을 위티커 형제는 그리고 있다. 천사 모로나이의 지시를 받은 어린 소년 요셉은 발에 제시는 아버지를 찾아가 전날 밤 자기가 받은 시현과 계명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다. 그의 부친은 귀 기울여 들었으며 요셉이 말을 마치자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이다. 집으로 돌아가 천사가 명한 대로 행하라.” 고 말씀하셨다. (값진, 요셉 스미스 2서 48-50절)

밤 교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도움과 힘을 제공할 것이며 신권회 및 보조 조직 교재를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교회의 표준 경전에 있는 성구를 공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를 영생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감의 안내자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 잡지를 생애의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여러 해를 두고 교회 잡지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는 잊을 수 없는 많은 추억을 전해 주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를 통하여 교회 잡지가 전한 기쁨과 권고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6대 대관장이시었던 나의 부친 요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튼튼한 가정과 굳은 간증을 쌓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잡지의 기능을 잘 알고 계셨으며 친히 임프르브먼트 이라와 주베닐 인스트럭터를 발행인을 맡으셨던 것입니다. **●** 나의 부친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특히 학대와 곤경에 빠진 자들을 동정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끔찍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이들을 모두 사랑하셨고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의의 전도자였으며 그의 간절한 말씀은 많은 사람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위엄이 따랐고 확신과 진리를 통달한 자로의 신념을 갖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간증에는 불명확하다거나 의심스러운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사명과 그의 삼존이신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많지만 특히 그중에도 아버님 곁에서 복음의 원리를 토론하고 아버님이 복음을 설명해 주시던 대로 그 말씀을 귀담아 듣던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리에 대한 나 자신의 지식의 기초가 놓여진 것이며 이로써 나도 구세주가 살아 계시고 요셉 스미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간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로서 나는 요셉 스미스와 브리감 영

이 예언자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간증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나의 부친과 절친하셨던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내가 한살이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청소년의 몸으로 나는 존 테일러 대관장님, 윌포드 우드럼 대관장님,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님과 사적으로 알고 교제했습니다.

내가 사도로 성임되었을 때 이라지의 발행인을 맡고 있던 전 대관장들, 즉 히버 제이 그랜트, 조지 알버트 스미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나와 함께 사도 정원회에 속한 사도였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를 건설하는데 헌신적으로 불처럼 일하던 월군이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개인의 간증이 곧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활력인 것입니다. 간증은 따뜻한 가정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한편 얻은 간증은 교회 집회를 통하여 굳건해지며 교회 사업에 종사하고 경전에 기록된 선지자의 말씀을 공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빛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가족이 간증을 얻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며 성도들은 마땅히 간증을 얻고 간직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온 가족의 목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간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하한 수단이라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의 만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서 역사되고 있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알며 그가 이 교회의 모든 반차를 인도하심을 압니다. 주는 그의 종을 통하여 이 땅에 전해 주신 권고와 계명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교회의 지도자를 지지하고 교회 잡지를 지지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

이후의 모든 기사는 지난 임프르브먼트 이라, 인스트럭터, 상호 부교회지, 어린이 친구 등의 잡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도일 엘 그린—

교회와 교회 잡지

도일 엘 그린 교회 잡지 편집장

●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교회가 시작된 때로부터 출판 활동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에 감동되어 요셉 스미스는 1820년 봄 거룩한 숲으로 인도되어 갔습니다. 물몬경으로 출판된 금판의 기록은 성경의 기록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했고 값진 복음의 원리를 인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리와 성약의 기록과 값진 진주의 기사는 교회의 표준 성전으로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기 간행물—신문이나 잡지 등—도 이상에 열거한 출판물과 함께 교회의 재건과 복음 회복의 과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정기 간행물 중에는 수명이 길었던 것도 있었고 짧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여건과 요구에 따라서 정책

적으로 정기 간행물의 발행 여부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의 출판 역사를 살펴보면 짧은 기간에 참으로 많은 정기 간행물을 교회가 출판해 냈고 또 많은 변화를 시도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의 단체로서도 “기관지”를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이며 특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1830년 4월 6일에 회복된 연륜이 짧은 교회로서 교회의 사정과 복음 기타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교회의 성도 및 비회원에게 전한다는 뜻에서 기관지의 출판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교회정사 제 1권에 보면, “[1831년에] 있었던 대회에서 더블류 더블류 펠프스 형제는 미주리로 가는 선교사 여행을 오하이오주 켄시내티에서 멈추고 미주리주 잭슨군을

큰거지로 이브닝 앤드 모닝 스타지라는 월간을 인쇄할 인쇄기와 조판기를 구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P 217)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정기 간행물을 시작한 첫번 시도였습니다. 1832년 2월 펠프스 형제가 쓴 기사에 보면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할 시기가 임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 나라와 백성과 방언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이 간행물을 냅니다...” 또한 발행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이스라엘의 전령으로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음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세상적이거나 영적인 도움이 될 진리를 전하는 사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

기록 역사 1 : 259) 당시 미국에 있는 최서단의 인쇄소로부터 120마일이나 서쪽에 위치한 인쇄소에서 첫 번째 간행물이 인쇄된 것은 1832년 6월이었습니다. 간행물 출판은 약 14개월 동안 계속되었으나 1833년 7월 20일 폭도들이 몰려와 인쇄기와 제판 시설을 파괴하여 일단 일을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간행물을 계속해서 내보내야 겠다고 결정하여 또 다른 인쇄기를 구입하기에 이르렀고 드디어 1833년 12월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올리버 카우드리의 지도 아래 출판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십개월만에 잡지의 체제를 바꾸었고 그 이름을 “말일성도 전령 및 대변자” 라고 하였습니다.

이 잡지의 첫호에는 여러 가지 특기할 기사가 있었으나 그중에서도 주목할만한 것은 올리버 카우드리가 직접 서명하여 공포한 우리 교회의 기본 교리의 강론이었습니다. 그 후로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가 발행을 맡았다가 다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발행인이 되었습니다. 이 잡지는 36회 걸쳐 출판되었으며 주로 교리를 다루어 교회 회원을 교육시켰고 신앙에 큰 힘을 부어주었습니다.

1837년 10월 이 잡지는 장로지라는 명칭으로 개칭되었으며 1838년 8월까지 요셉 스미스, 토마스 비이 마쉬, 돈 캐롤스 스미스 등 여러 분이 발행과 출판을 맡았습니다.

박해가 극심하던 이때에 잡지의 출판을 위하여 수고하였던 여러분의 어려움은 지금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폭도들이 그해 11월에 인쇄소에 불을 지르고 인쇄기를 파괴해 버렸기 때문에 커틀랜드에서 겨우 장로지 2회분을 출판한 채 중단하지 않을 수 없

었습니다.

1838년 여름 미주리 파 웨스트에서 다시 출판을 계속하였으나 폭도들의 횡포가 극심하여져서 잡지는 두 번 그 얼굴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1838년 여름 샤무엘 디이루카스 장군의 지휘하에 2,000 병사가 파 웨스트를 포위하고 시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처하여 갇힌 인쇄 시설을 잃은 것을 아깝게 생각했던 형제들은 인쇄기를 감추기로 작정하고 밤중에 더슨 형제집 뒷뜰을 파고 인쇄기를 묻은 다음 흙을 전처럼 정리했습니다. 그리하여 인쇄기는 1839년 봄까지 그곳에 묻혀 있다가 일리노이주 나부로 옮겨졌습니다. 기계를 닦아내고 수리한 다음 이 기계로 “타임스 앤드 시즌스”라는 책을 인쇄했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1839년 6월 그는(돈 캐롤스 스미스) 타임스 앤드 시즌스의 출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 스미스와 하이람 클라크 그의 몇몇이 파 웨스트에 있는 더슨 형제의 집 뒷 뜰 무덤에서 루카스 장군이 폭도로 구성된 군대를 이끌고 파 웨스트를 포위했던 날 밤 안전하게 대피되었던 인쇄기와 제판 시설을 파내어 복구시켰습니다. 장로지의 원판이 잉크가 묻은채 인쇄기와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활자판은 습기에 부식되어 못 쓰게 되었으므로 급히 수선을 서둘러야 할 형편이었고 이를 위해서 돈 캐롤스는 당시에 인쇄기를 설치할 수 있었던 유일의 장소인 지하실에 썸이 나고 있었는데 이 썸물을 닦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교회 기록 역사 4:398)

돈 캐롤스 스미스는 타임스 앤드 시즌스를 성공적으로 발행했으며 그 뒤를 이어 요셉 스미스 이세, 존

테일러가 맡았고 성도들이 나부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돈 캐롤스 스미스와 에베네저 로빈슨에 의하여 출판되었습니다. 이 잡지는 131호를 기록하였으며 그동안 나부의 성장과 성도들의 발전상을 소상하게 전하는 역사의 증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 잡지에는 여러 가지 복음의 원리와 각 선교부의 소식 기타 말일성도의 관심사를 실었습니다.

1845년 10월 4일, 성도들이 나부에서 강제로 추방당하게 되었을 때 리처드 장로는 “이로서 타임스 앤드 시즌스의 발행을 끝내고 대회의 진행록을 나부 네이버지에 실기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회 기록 역사 7 : 454) —나부 네이버는 교회가 출판한 주간지였음—

1840년, 거의 대부분의 사도는 영국에서 정원회 일을 보았습니다. 그해 5월에 그들을 밀레니얼 스타지를 냈습니다. 서문을 빌어서 “이 잡지는 일상의 정치나 시대의 경제 동향은 실지 않는다. 오직 초대 교회의 원리가 이 세상에 회복된 그대로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데만 전력하며 —이스라엘을 모으고—온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을 내세우며—시대의 징조를 밝히고 —예언의 성취를 그리고—세상에 떨어지는 피와 불과 안개와 연기의 징조가 하늘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를 분간케 하며 (행 2 : 19 참조)……그리스도의 재림과 통치를 안내하는데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기록 역사 4:133) 이 주간지는 실제로 이러한 높은 이상과 목표를 철저하게 달성했습니다.

성도들이 록키산맥을 향한 서부로의 대 행진을 시작하면서 아이오와주 케아스빌에서부터 올슨 하이드에 의하여 신문 발행이 시작되었으며 이 신문을 “후론티어 가디언”

(개척자 안내)이라 하였습니다. 준월간인 이 잡지는 3년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850년에 출판이 시작된 “데저렛 뉴스”는 미국 서부에서의 첫번 신문이었으며 반세기가 넘도록 교회의 중추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신문은 여러해 동안 주간지로서 발행되었고 후에는 준 주간지로 마지막에 일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밖에도 교회의 필요에 의하여 여러 가지 출판물이 나왔습니다. 교회의 보조 조직에 관련된 잡지로서 처음 출판된 잡지는 1866년에 시작된 “쥬베닐 인스트락터”였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에 이 잡지는 주일학교의 것이 되었습니다. 1930년까지는 쥬베닐 인스트락터는 주로 어린이용이었으며 그 후로는 “인스트락터”로 개칭하여 주일학교의 교사와 역원을 위한 잡지로 성격을 바꾸었습니다.

청년 남자 상향회의 잡지로는 1879년에서부터 1896년까지 “컨트리 뷰터”라는 잡지가 있었으며 일년 후에는 “임프르브먼트 이라”지가 시작되었습니다. 1929년에는 “영 우먼스 저널”지가 발행되어 이라지와 쌍벽을 이루었고 이 잡지는 청년 상향회지로서 1889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상호 부조회에서는 “우먼스 엑스포넌트”지를 1872년에서 1914년까지 발행했습니다. 1915년 1월부터 이잡지를 “상호 부조회” 잡지라고 개칭하였고 이 잡지는 교회 상호 부조회의 전령으로서 1970년 12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교회 초등협회 본부가 발행한 “칠드런스 후랜드”지는 1920년에 시작된 것입니다.

1967년은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커다란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한 해

입니다. 1967년 3월에 구라파 지역에서 교회 종합 잡지를 출판하기 시작하였고 다른 지역의 지도자들이 이 잡지의 기능과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이를 출판하기 시작하자 동남 아시아와 남 태평양 지역에도 이 잡지가 보급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종합 잡지는 미국 인디언을 위한 영어판을 포함하여 17개 국어로 출판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1967년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여러 나라에 교회 출판물이 소개된 해입니다. 여기 저기 온 세계 여러 곳에 선교부가 생기고 정기 간행물이 출판되어 성도들에게 교회의 발전상을 전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위로와 안내와 영감의 말씀을 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이 교회 정기 간행물 출판의 약사이며 이 사실을 공부하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성도들의 헌신과 용기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리라 믿습니다. 개중에는 수명이 짧았던 것도 있고 길었던 것도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그들의 “Wer Stern”(별)지는 1869년에 창간된 것으로 교회 종합지보다 약 한세기 전에 시작되었으며 독일 국민을 위하여 그 오랜 세월을 참으로 성실하게 봉사해 온 것입니다. 서반아의 “리아호나”지는 1945년에, 불란서의 “페토일”지는 1926년에 각각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종합지를 출판하는 이유는 세계 여러 처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가능한한 많은 교회 프로그램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성도의 벗은 (Saints friend) 1959년 고 김 호직 박사의 주선으로 시작되었으며 성도의 벗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시면서 친필로 표지의 글씨를 써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곳에서 출판하는 젊은이들의 문

예 활동을 통일한다는 뜻에서 시작된 이 잡지는 게일 이 카 초대 선교부장,스펜서 제이 팔머 2대 선교부장이 발행인을 맡았고 인쇄는 처음에는 선교부내 인쇄 기제로 하다가 1967년 5월초부터 보진재 인쇄소로 넘겼었습니다. 이때에 책의 크기는 국판으로 30페이지 정도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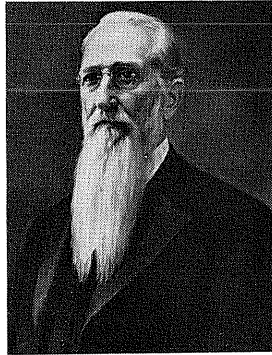
1968년 3월에 교회 본부에서 계획한 교회 종합 잡지가 한국에 소개되면서 이 종합 잡지를 한국에서는 성도의 벗이라는 이름으로 내기로 결정하고 현재 이르기까지 출판을 계속한 것입니다.

종합 잡지가 시작된 1967년 이래 1971년 4월까지의 임프르브먼트 이라, 인스트락터, 상호 부조회지, 칠드런스 후랜드지 등에서 뽑은 기사를 종합지에 실었습니다. 교회의 출판 역사에는 또 다른 새로운 페이지가 더해졌습니다. 1970년을 끝으로 이제까지의 영어 잡지 및 밀레니얼 스타를 중지하고 그 대신 교회의 성인을 위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의 “엔사인”(기수)지와, 청소년을 위한 “뉴 이라”지, 아이들을 위한 “후랜드”지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71년 1월부터 선을 보인 이 잡지는 교회 협의회의 가족을 형성하며 대관장단과 사도 회의의 발의와 진행으로 출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잡지에서 성도의 벗과 기타 종합 잡지에서 실리는 기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관장단에서 모든 성도의 가정에 엔사인지나 성도의 벗이 반드시 비치되기를 요망하고 있으며 이로써 교회의 성도들이 매달 교회 지도자의 메시지에 접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프로그램은 영감적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

부름과 해임에 관하여



대관장 죠셉 에프 스미스

교회 6대 대관장
1901—1918

● 말일성도는 모두 교회가 개인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교회가 개인보다 소중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기도 하지만 교회와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 합니다. 말일성도의 특징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복리를 위하여 희생이 요구될 때 그 희생을 기꺼이 맡고 나서며 그것으로 자기를 위대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훌륭한 말일성도는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할 바를 다하겠다는 결의로 차 있습니다. 매년 수백명의 선교사가 부름을 받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나아가 2년 혹은 3년을 바쳐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 하며 일단 이들이 임기를 마치면 새로 부름을 받은 선교사가 그 뒤를 이으며 집으로 돌아온 귀환 선교사들은 또 그곳에서 주어지는 임무에 충실하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끝내고 해임될 때 그것이 달갑지 않다거나 섭섭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성도들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더러는 감독단에, 어떤이는 스테이크 부장으로, 또 누구는 기타 다른 직책을 맡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임무를 완수하거나 교회의 입장에서 다른 조처를 취하여야 할 때 이들은 맡았던 직분을 내놓게 되며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의 어떤 직책을 맡았다가 경질되는 것은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외국에 나가 일하다가 해임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자가 자라서 신체적으로 교회의 어떤 직책을 맡을만 하게 되면 합당한 직책을 맡게 되고 어린 사람은 그 정열과 의욕에 알맞는 직책을 맡게 되며 더욱 능력이 있고 전강한 사람이면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직책을 맡았다가 그 자리에서 해임되는 것이 불명예스럽다거나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거나 불유쾌한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형제들은 영의 영감을 받는 관리 역원에 의하여 부름을 받습니다. 사람이 직분이나 직책을 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권의 부름을 받았다가 스스로 사표를 낸다는 식의 처사도 물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교회의 관리 역원이 결정하는 대로 늘 부름을 받을 준비와 부름받았던 직책에서 해임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세상의 직장이나 정치적인 직위 처럼 교회의 직책에는 사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임이라는 것을 교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교회의 신권의 직책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스스로 사임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자기가 해임되는 것이 옳다고 느끼고 또 교회가 그렇게 결정을 할 경

우 해임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느낄 때는 해임의 조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성도는 자기의 직책과 부름의 열쇠는 신권 지도자의 손에 있다고 느껴야 하며 자기의 그러한 느낌을 지도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자기의 해임으로 교회의 발전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라도 회원은 자기의 그러한 생각을 자기에게 부름을 준 지도자에게 알려 그가 자기를 주님의 지시와 지혜로서 직책에서 해임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같이 하지 않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거나 교회의 발전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책임 맡은 교회의 지도자는 부름을 받는 사람과 무한한 규모의 교회의 복리를 깊게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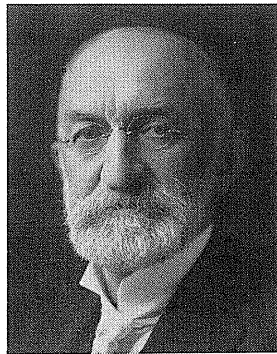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는 말로 다할 수 없을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어떤 직책에 부름을 받으면 그것이 종신 직책이라고 생각하여 책임이 통보

되면 자기의 명예나 품위가 깎이는 처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혀 그릇된 생각입니다. 교회의 역원은 역원을 선택하고 성임하는 자에게 해임의 권리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며 해임되는 것이 불명예스럽다거나 품위가 손상되는 것이 아님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현재 자기들이 맡고 있는 직책이 다른 사람에게 맡겨지므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된다고 관리 역원이 느낄 때는 언제든지 기쁘게 해임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관리 역원의 부름과 책임을 처리하는 권리와 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책에서 해임되는 것은 외국에 나가 선교사의 일을 하다가 임무를 완수한 것과 다를 바가 없고 기타 감독단에서의 임무를 끝낸다거나 사람들 속에서 선교사로의 일을 하다가 임무를 완수한 것과 같아서 불명예스럽다거나 인품을 깎아내리는 처사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

1907년 7월호 이라지에서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는 이들에게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
교회의 7대 대관장
1918—1945

대관장 히버 제이 그랜트

●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어린이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합당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어리고 순결한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인상이 그 이후에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진하고 또 오래 마음 속에 남는다고 하는 데에 추호의 의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흰 종이 위에 글씨를 쓰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비록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리 훌륭하지 못한 일을 범했고 또 스스로에게도 좋지 못한 일을 행한 사람이 그 후에 훌륭한 업적을 이룩하는 예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인생의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아무런 혼란의 글씨가 쓰여있지 않은 종이에 기록을 시작하는 편이 비교할 수도 없을만큼 훌륭한 것입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는 여러분이야말로 어린 떡잎을 가꾸는 수고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여덟살이 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주 앞에 의롭게 사는 법과 기도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가 부모의 머리 위에 내려진다는 말씀이 교리와 성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성

68 : 25, 28 참조)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는 아이들의 모습을 형성시켜주는 부모의 작업을 돕는 조력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사로의 임무와 책임은 말로 다 할 수 없을만큼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이 주일학교, 초등학교, 상호 향상회에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저들에게 훌륭한 이상을 심어주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적에 내가 교사에 대하여 가졌던 마음의 감사는 이 생과 영생을 통털어 나의 옛 제13와드의 존재와 함께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모습지어 주는 하나님의 작업에 도구로 쓰이는 자가 되었다는 우리의 확신을 세상의 재물이나 증권이나 돈으로는 어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아이들의 마음을 선하게 지도하고 인도해준 교사는 영원토록 자기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로 부터 감사와 고마움의 참 인사를 받게 될 것을 감히 약속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로서 나를 가르쳐 주신 해밀톤 지파 형제에게 참 마음의 감사를 나는 헤아릴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나에게 선한 이상을 심어주시고 주일학교 분반 때에는 훌륭한 간증을 들려 주셨으며 그분의 조국인 스코틀랜드의 두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일하며 경험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의 기쁨 등을 들려주신 그분께 내가 감사에 감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 고마움에 대한 보답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소년으로의 마음에 훌륭한 이상을 심어 주신 해밀톤 지파, 조지 고다드, 벨슨 엠피 감독, 에딘 더이 울리 감독, 밀렌 애트우드 감독 등 여러분을 다시 한번 만나뵙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내게 고마움을 끼쳐주신 분의 이름을 낱알이 다 밝히려면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이분들께 나는 그 고마움을 입게 해주신 뜻에 대하여 영원을 두고 감사드리겠습니다.

혹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어떤 모습이 그리 오래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분명히 나는 한번 새겨진 영상이 언제까지라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만일 교사가 하나님의 영감이 지시하시는 대로 어린 아이에게 간증을 했다면 간증을 들은 아이가 쉽사리 그 간증을 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어렸을 적에 혹 심부름을 가게 되거나 아니면 라이온 하우스¹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엘리자 아줌마”라고 불려온 엘리자 아아르 스노우²에게 메시지를 전하러 갈 때마다 그분이 내게 들려주신 수많은 훌륭한 이야기에 대하

여 나는 언제까지나 감사의 마음을 가질 것이며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그분이 어머니 다음으로 내게 감사한 분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분은 한번도 빼놓지 않고 내게 잠시 앉으라고 권하셨고 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그가 우리 모친과 함께 나무에 있었을 때 겪은 신앙을 불타게 하는 이야기를 되풀이하여 들려 주셨으며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셨는데 이런 이야기는 모두 내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셨던 생애만큼 값진 생애를 살아야 하겠다는 결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어렵듯하게나마 나는 에라스투스 스노우³의 훌륭한 가르침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쏘트레이크에서 삼백 오십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사셨지만 4월이나 10월의 연차 대회나 그밖에 일로 쏘트레이크에 들리지기만 하면 거의 예외 없이 어머니를 방문하여 사는 형편을 물으셨고 내가 나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는지 등을 늘 친절하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 있는 한, 아니 무덤을 지나서까지 그분이 들려주신 훌륭한 간증의 말씀과 아버지같은 충고의 말씀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우리들 교사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의 지시 안에서 이제 막 인생의 전쟁을 시작한 어린 소년 소녀의 깨끗한 마음에 선한 이상을 심어줄 기회와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수고를 축복해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추복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종사하는 일에 사랑으로 임하는 것이며 그 사업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영감대로 이행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속인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저들은 복음이 적힌 기록은 갖고 있으며, 성경도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성경을 굳게 믿어 우리들처럼 복음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권의 권세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며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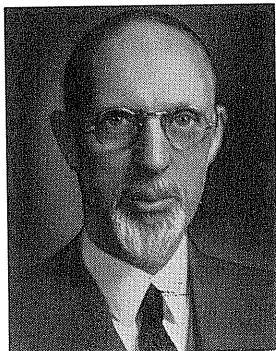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교사에게 임하시어 저들이 복음의 빛과 지식으로 밝혀지고 복음의 영과 권세로 채워지며 저들이 가르치고 있는 자들과 더불어 교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

3. 에라스투스 스노우 —영 대관장 당시 사도

1939년 3월호 이라지에서

1. 유타주 쏘트레이크에 있는 브리검 영의 저택

2. 엘리자 아아르 스노우, 교회의 작가, 시인 1804~1887



주님께 기회를

대관장 조지 알버트 스미스

교회 8대 대관장

1945~1951

● 가두 복음 전도가 금지된 지역으로 떠나는 선교사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주님께도 기회를 드려야 할 것을 잊지 말게. 주님께 구하고 또 주님께 기회를 드리게. 방편을 마련해 주십시오 간구하게”

그 젊은이는 위에 언급한 시로 가서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시장에게 가두 복음 전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할 작정이었습니다.

마침 시장은 부재중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시장실에서 나와 무심히 회의실 쪽을 바라보다가 복도 끝에 “치안국장실”이라는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주님께 기회를 드리라”는 이야기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곧장 그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용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젊은이가 말을 끝내자 담당관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길 모퉁이가 좋겠오?” 이에 젊은이는, “저는 이곳 지리를 전혀 모릅니다. 실제로 교통의 방해가 된다거나 시에서 금지하는 곳은 원하지 않습니다. 편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나가셔서 직접 거리를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젊은 선교사가 그것도 치안 담당관에게 복음을 전파할 길 모퉁이를 찾아 달라고 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아, 그렇다면 함께 갑시다.”라고 선선히 응대 주었습니다.

불과 십 오분만에 이들 일행은 세계 1차 대전 이후 복음이 전파된 일이 없는 어느 훌륭한 길 모퉁이에서 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미 책에도

발표가 되어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줄 압니다만 존 에이 윗소¹ 형제가 스칸디나비아에서 길 옆 작은 상점에 왜 그런지 자꾸 들어 가고 싶어서 들렀다가 완전한 제보책 일습을 구하게 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점 주인은 그 기록이 별로 필요없다고 생각하여 윗소 형제에게 헐값에 넘긴 것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스칸디나비아 제보의 기록으로서 참으로 교회로서는 보물처럼 여길만한 가치를 갖고 있었는데 만약 윗소 형제가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았다던가 영의 인도에 따르지 않았다더라면 이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윗소 형제가 이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던들 이 특별한 기록은 복사되거나 혹은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하여 우리들에게 소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는 무슨 일이라도 성취할 수 있는 방편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이행이 불가능한 일을 절대로 우리에게 시키시지 않습니다. 니파이에게 말씀하신 대로 방편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주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시키시지 않습니다.

“나 니파이는 부친께 이르기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 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니일 3:7)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명하시던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주기를 기대하신다면 비록 그 이행 방법을 잘 모르는 때라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착수해야 합니다. 주를 신뢰하고 주께 기회를 드리다면 주는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 하실 것입니다. ○

1. 존 에이 윗소, 12사도 정원회의 일원 1872—1952

구혼과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교회 9대 대관장
1951—1970

● 구혼과 결혼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철저히 정리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서로가 상대를 지혜롭게 그리고 기도로서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반려자의 선택이 곧 장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와 이상이 맞는 자를 생애의 동반자로 선택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사람과 교제를 갖는다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과 교제하는 사람의 성격이 영 여러분과 다르다고 느껴지거든 이성으로 감정을 다스리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하면 반대되는 성격도 극복할 수 있고 못된 버릇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 결혼 전에 잘 정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긍정적인 성품이란 어떤 것일까요? 참된 사랑을 갖고 대할 수 있으려면 정직, 순결, 성실, 경건 등의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여러분을 기만하거나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됩니다. 결혼의 근본적인 원리는 지고한 영혼의 사랑입니다.

젊은이들은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천부의 연민을 느끼기 시작할 때 사랑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찌 이를 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외치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현대 심리학자들이 내세우는

이야기로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 시키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에 잘못 현혹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신체적으로 왕성한 젊음을 구가하는 연령에 도달한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리를 판단하는 능력도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신성한 목적을 위하여 판단력과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성과 지혜로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며 균형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원동기 엔진을 가까이 본 일이 있습니까? 엔진은 돌면서 힘을 내지만 마찰열이 적당히 처리되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균형이 깨어진다면 엔진 전체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열이 처리되는 까닭에 모든 것이 통제되며 균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걱정을 다스리는 이성과 판단력이 있습니다. 균형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균형이 허물어져 혼란이 빚어지는 날에는 여러분의 삶은 파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결혼을 자기의 감상이나 즐거움을 위한 계약 정도로 생각한다면 사소한 어려움이나 오해로 파탄을 초래하게 되며 어린 아이들이라도 생긴 후라면 파탄이 던져주는 피해가 더욱 클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씨는 청소년 시절에 심어집니다. 행복이 결혼 식장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행복은 사랑을 서로 나누는 시절, 젊은 시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에 교회 표준에 알맞게 자기를 다스리는 일이 첫째 과업이요, 둘째는 아름다운 여성으로의 지킴이요, 셋째는 행복한 가정의 터전이요, 넷째는 자손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수고입니다.

너무도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식이 자기들의 사랑의 대화가 끝나는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마땅히 말일성도의 젊은이들은 결혼식이 영원한 반려의 여행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한결같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짐을 함께하는 동안 서로 감사의 대화를 나누고, 연애를 하던 시절보다도 더 따뜻하고 사려깊은 행동을 나누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결혼으로 이끌어준 그 사랑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면 “감사하오, 용서하오” 등의 사려깊은 이야기를 결혼한 날부터 써야 할 것입니다.

결혼 이후의 행복을 보장하는 세 가지 원리를 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첫째, 충성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훌륭한 아내 이외의 여자에게 주의를 집중할 권리가 없습니다. 남편인 여러분은 다른 남자의 부인의 주의를 끌게 해서도 안됩니다. 다른 부인은 자기의 남편을 섬기고 가정을 꾸려야 하는 자기의 임무를 갖고 있는 것

입니다. 결혼식에서 맺은 그 약속에 충성해야 하겠습니까.

둘째, 자제력입니다. 작은 것에 자극되어 여러분은 급히 이야기하고 날카롭게 말하고 큰 소리로 떠들어 상대의 마음을 상해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할 때의 자제력보다 더 효과적으로 가정의 질서와 행복과 평안을 돕는 도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마음을 상하였고 또 분한 일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불과 몇분이 지나지 않아서 심한 말을 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심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의 화평과 사랑이 허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의 원리는 예절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어버이에게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로써 가정에는 충성과 자제와 예절이 존재하게 됩니다.

십오년을, 삼십년을, 오십년을 아니 영원을 두고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나누던 때처럼 서로 예의 깊게 대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열쇠입니다. 가정에서의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있는 곳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가정을 천국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천국이 이상적인 가정의 연속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1969년 2월호 이라지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 지고의 인간 !

온전히 인간으로의 인성과 신회의 일원으로서 육신으로 완전을 이루고 사셨던,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입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자.

영원히 살아계신 여호와. 그는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계시며 지존¹하는 자로 세월과 영원을 초월하는 분.

그를 아버지께서는 독생자요 선택된 자라 부르셨고 영의 장자²라 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³.

그는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을 밟으셨습니다.

베들레헴⁴의 아기로 나사렛⁵의 소년으로 고뇌속의 인자는 슬픔⁶을 아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만형이신 주.

만유의 선생님.

그는 죄인으로 몰려 육신의 죽음을 당하시었으나 승리의 하나님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죄의 구세주, 사망의 대속자로서 그는 인류의 영생을 가져 오셨습니다.

그는 무덤에서 부활한 생령⁷이 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지옥과 사망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⁸, 그는 가신 그대로 오시며 오셔서 친히 이 세상과 성도를 다스리실 것입니다⁹.

그는 정결하게 된 이 땅을 그가 구속한 인류와 함께 아버지께로 가져가 “제가 홀로 세상의 고난을 이겼습니다. 라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주는 영광의 관을 쓰고 권세의 보좌에 영원토록 앉으실 것입니다.”(교성 76 : 107—108 참조)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아들이라고 반복하여 부르

셨고 소년 시절로부터 거룩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도록 인자로서의 승화된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시대의 예언자와 사도들, 그리고 그의 소식을 기쁘게 들었던 자들은 그의 거룩한 존재를 엄숙하게 인정했습니다. 천사들이 찬송하고 악귀가 그의 이름을 듣고 떨었으며 그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나 육신으로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는 인간 틈에서 인간으로 사셨으며 어머니의 인성과 불사불멸의 아버지의 신으로의 권세를 모두 온전하게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을 수도 있어서 죽었다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죽음에 머물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육신의 몸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요 10 : 17-18)

물론 그는 인류의 구세주, 대속자로서 인정되어 임되었으나 이는 오로지 그의 힘 없는 순결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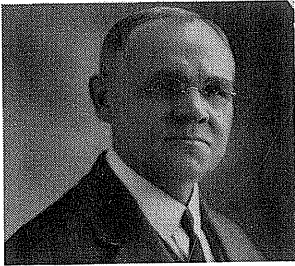
그는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었고 구약의 여호와시오 신약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 하늘 아래 사람으로서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 4 : 12 참조)

그는 바로 이 시대에도 몸으로 선지자 앞에 나타나어 보이셨고 사람끼리 이야기하듯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시며 이 시대에 그 두 분을 온전히 그리고 자세하게 현대 예언자는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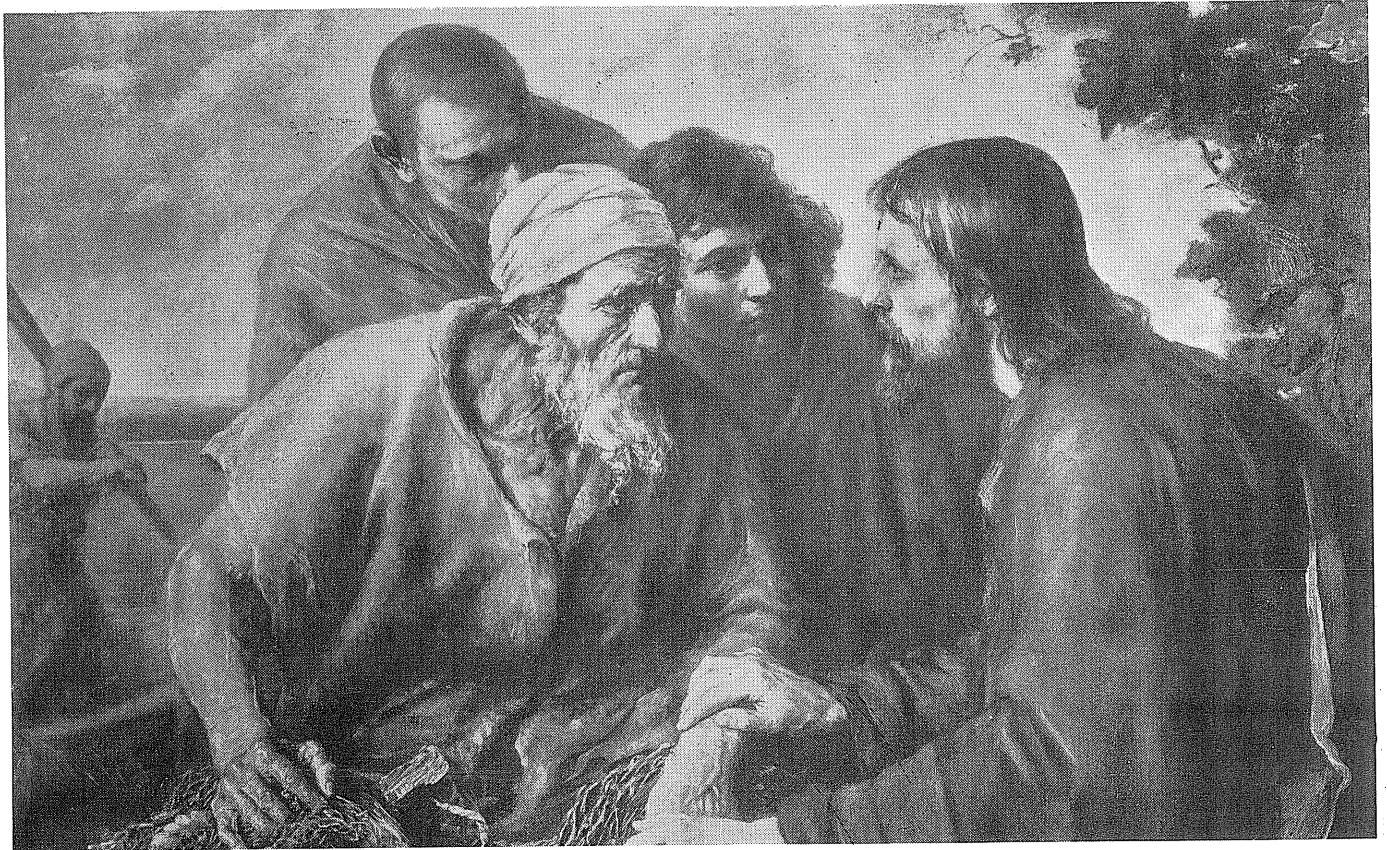
주는 주를 위하여 일하도록 인간을 택하사 그의 교회를 마지막으로 이 땅에 회복해 주셨고 이 교회에 그의 이름을 주사—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1. 창 3 : 14 참조
2. 교성 93 : 11, 21 참조
3. 요 1 : 1, 14 참조
4. 마 2 : 1 참조
5. 마 2 : 23 참조
6. 사 53 : 3 참조
7. 고전 15 : 20 참조
8. 행 1 : 11 참조
9. 교성 76 : 63 참조



제임스 이 탈메지

12사도 정원회 일원
1911—1933 예수 그리스도,
신앙개조의 저자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주는 그의 교회에 초대 교회와 같은 역원 즉 사도, 축복사, 대제사, 칠십인, 장로, 감독, 제사, 교사, 집사를 두셨습니다.

그리하여 또다시 인류에게 신앙과 회개와 침수로서의 침례와 권능있는 자의 안수를 통한 성신의 부여로서 얻어지는 영의 침례를 외치셨습니다.

그는 영의 은사로 그의 권세를 들어내사 계시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고전 12:4-10 참조)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시현과 계시를 받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밖에도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칭하는 많은 은사를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대속이 확정되었고 모든 영혼의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전하

신 계획이며 이로서 죄악에 빠지고 타락한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계획은 인류의 죄의 상처를 치료하는 계획입니다. 구속 즉 사망으로부터의 구출은 온 세상이 누리는 특권이요 구원의 개인의 성취로서 구세주가 이룩하신 대속을 바탕으로 복음의 법과 의식이 지켜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업과 영광을 달성키 위하여서는 구속주 즉 구세주의 역할이 꼭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구원의 지식이 만인류에게 전해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심을 한 입으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교성 88:104, 모 27:31 참조)

1932년 12월호 이라지에서

뉴질랜드에서의 기적

롤린 에프 휠라이트

브리감 영 대학교 문리과대학장

● 뉴질랜드의 수천 성도는 물론 매튜 카울리 장로의 신권의 축복으로 눈먼 어린 아이가 광명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온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놀라움과 기쁨을 금치 못했습니다. 라하 위니에라 라는 아이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몇년 전 이 병고침의 기사를 처음으로 읽었을 때 나는 카울리 장로가 전하는 그 간결함과 소박함에 마음에 크게 감동된 바 있었습니다.

1953년 브리감 영 대학 학생들에게 카울리'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나는, 기적적이라는 이야기는 합당치 않지만, 어쨌든 기적같은 성신의 인도로 신권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학생 여러분께 증거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권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으며 실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너무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는 선수가 되고 말았습니다.”¹

카울리 장로는 병고침의 몇몇 체험담을 전하셨고 성신의 역사하시는 일을 몇 가지 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눈이 먼 생후 아홉달이 된 아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마침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울리 형제님. 우리 아이가 아직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었군요. 왜 늦었지요?’ 내가 물었습니다.

‘아, 뭐 그저 어쩌다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그 지방의 사는 모습이었고 난 그러한 그들의 태도가 좋았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일에 열중하거나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살아서 즐기자.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물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름을 일러 주길래 막 축복을 시작하려 하자 또 이렇게 나를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자—잠깐만 그런데 이름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김에 이 아이의 광명도 주셨으면 합니다. 이 높은 날때부터 눈이 멀었지요’ 자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자 나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마음 속으로 축복을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적을 행하게 되리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가진 신앙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고 그리고 그 어린 것에게 광명을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열 두살의 소년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그곳에 들렀을 때 왜 그런지 그 아이에 대해서 묻기가 무서웠습니다. 웬지 그 아이가 다시 장님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역사가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부장에게 그 아이의 소식을 짐짓 물었습니다. ‘지부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카울리 형제님, 그 아이를 축복하시고 시력을 회복하여 주신 일은 형제님의 일생 일대의 실책이었습니다. 그 높은 이 동리에서 제일 많을 알패요 못된 짓은 혼자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참으로 나는 그 녀석이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사실에 일종의 안도를 느꼈습니다. 그놈이 못된 짓을 다 하게 되었다니!

.....하나님께서 홀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도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손을 펼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기적의 요소를 그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 손아귀에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압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였음을 압니다. 이 세상에 기적이라고 일컬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날 이토록 큰 위세로 성장한 바로 이 교회의 발전이라 하겠습니다.”²

최근 나는 주일학교 총본부 역원으로서 뉴질랜드의 스테이크를 방문하라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곳에 체류하면서 나는 매튜 카울리 장로가 축복해 주셔서 빛을 보게된 그 소년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의 누이가 해밀톤에 산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곧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여보세요! 카울리 부장님의 축복을 받고 눈을 뜨게 된 남동생이 뉴질랜드에 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웰링톤에 살아요. 그곳 스테이크에 가시면 만나실 거예요. 모임에 참석할테니까요. 교회에 아주 열심히랍니다”

나는 라하가 교회에 아주 열심히인 것을 이내 알았습니다. 소년 시절의 개구쟁이 때를 벗고 의젓하고 친절한 성품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자기에 관하여 간증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광명을 얻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열 여섯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뒷말을 이렇게 이었습니다. “나는 교회가 참되다는 간증을 갖고 있어요.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이 젊은이는 신권의 권세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1949년 교회 연차 대회에서 이 사실을 보고하시면서 카울리 장로님은 그 당시 12사도의 일원으로 그때 그 아이를 축복할 때의 심정이 아이에게 빛의 축복을 간구하는 열망으로 가득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으로 영적인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나 그 아이의 아버지, 그 촌 섬사람은 순수한 신앙, 말하자면 물리학이나 근대 학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하여 주신 약속을 믿는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준 후 점점 용기를 얻게 되었고 마침내는 시력의 축복을 주었던 것입니다.”³

카울리 장로님의 이 말씀은 늘 뉴질랜드의 방문을 생각하게 하고 나의 가슴을 고동치게 하며 라하를 만나 그의 반짝이는 눈을 바라보던 일과, “나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간증을 갖고 있어요. 좀 더 알고 싶습니다”라고 한 그의 간증을 기억하게 합니다. ○

1. 매튜 카울리 (1897—1953) 12사도 정원회

2. 매튜 카울리저, 매튜 카울리 이야기 (메저렛 출판사 간 1960, P238)

3. 같은 책 247—248페이지

4. 같은 책 5페이지

예언자가 된 시인

웬델 제이 애쉬튼

● 밀렌돌프는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국경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영국 서북부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밀렌돌프는 영국 호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름답고 맑은 잔잔한 호수와 숲이 무성한 녹색 뚝으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에는 또 유명한 시인도 많습니다. 이들 시인의 이름을 대면 여러분도 아는 이름이 많을 것입니다. 워즈워드라던지 콜리지, 수더 등이 포함됩니다.

1808년 11월 초하루 또 다른 시인이 밀렌돌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테일러입니다. 그는 쟁쟁한 시인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는 시인보다 더 훌륭한 인물, 주님의 예언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삼대 대관장이 되었습니다.

존은 제임스 테일러와 애그니스 테일러 사이에서 태어난 열 자녀 중의 하나였습니다. 소년 시절을 평화스러운 호수가의 초원에서 일했습니다. 그가 열 네 살이 되었을 때 부모는 그를 통장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통장이가 되면 통을 만들거나 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은 리버풀에 있는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소년인 그는 상업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호수 지역의 펜리드로 가서 재목상을 하겠다고 길을 떠났습니다. 존은 펜리드에서 목재 일을 보며 오년을 지냈습니다.

존이 스물 두살의 젊은 청년이 되어서 존의 부모와 형제는 캐나다에 정착하기로 하여 영국을 떠났습니다. 당시 생존한 장자로서 존은 뒷일을 정리하기로 되어 뒤에 처졌습니다.

이년 후에 존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가족과 합류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목재상을 벌렸습니다.

토론토에서 젊은 존은 독실한 감리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주일학교 교사와 전도사 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서 그는 레오노라 캐논이라는 재치있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 소녀는 아일 섬의 죠지 캐논 대장의 딸이었습니다. 아일 섬은 밀렌돌프의 서쪽

에 있는 아일랜드의 섬입니다. 존은 레오노라와 결혼했습니다.

젊은 목재상은 감리교 교리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뜻을 함께 하는 몇몇이 어울려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탐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일주에 두번씩 모여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젊은 물몬 사도가 토론토에서 약 오십 마일 떨어진 해밀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사도의 용모는 “시골 농부 같다”고들 했습니다. 그가 바로 펠리 피이 프렛이었습니다. 해밀튼을 찾은 이 나그네는 무일푼의 노객이었습니다.

그는 숲속 은밀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해밀튼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름과 행선지를 물었습니다. 프렛 장로는 토론토로 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프렛 장로에게 노자 십 불과 존 테일러에게 전하라고 안내장을 써 주었습니다.

토론토에 도착하여 프렛 장로는 테일러의 집을 찾아 갔습니다. 마침 테일러 여사가 그를 친절히 맞아 주었고 가게로 나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테일러의 성경 구름과 대면하게 된 인연이었습니다. 존과 레오노라 테일러는 주의 깊게 숙고한 끝에 프렛 장로가 자기들이 찾고 있는 참 복음을 가졌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둘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던 자들도 모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존 테일러는 이십 칠세였습니다.

그리하여 시인의 땅인 영국 작은 마을 출신인 젊은 목재상은 새로운 인생의 길을 시작한 것입니다. 참으로 멀고 높은 길로의 시작이었습니다.

침례를 받고 수주일 이 지난뒤 존 테일러는 펠리 피이 프렛에 의하여 장로에 성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둘은 토론토를 근거로 회복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몇달후 프렛 장로가 떠난 다음에는 존 테일러는 캐나다 지역의 모든 지부의 관리를 맡았습니다.

그후 테일러 장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만났고 두분은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존 테일러 장로가

침례받은지 이년이 지난 뒤에 그는 교회의 사도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일년이 지난 뒤 존 테일러는 성도들이 미주리에서 쫓겨나 미시시피강 건너편 몬토로스에 정착할 지음 그곳 낡은 통나무 집에 아내와 자녀를 이주시켰습니다. 테일러 가족은 질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존도 병져 누웠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존은 그의 고향인 영국에 가서 선교사업을 하라는 교회의 부름에 응하였습니다. 이미 그때는 존은 “의의 챔피언”으로 성도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동반자 윌포드 우드럽은 동전 한푼 지니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에 이들은 교회의 두 사도 펠리 피이 프렛과 히버 씨 킴벌과 만났습니다. 프렛 장로가 자기의 지갑을 내주었습니다. “이게 모두요”라고 프렛 장로가 말씀하시고 “여기 일 불이 있느니 이걸 그안에 넣으시오”라고 킴벌 장로가 말을 받으셨습니다.

칠 주에 뉴욕까지 네 차례에 걸친 여행을 하면서 테일러 장로는 심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걸썩이나 가는 마을 어디서든지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때로는 서있을 기력이 없어서 그는 앉아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두 선교사는 한 겨울에 형편 없는 배편으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영국에서 테일러 장로는 어린 시절에 통쟁이가 되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던 리버풀로 임명되어 가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리버풀에서 존 테일러는 선교사 동반자 둘을 택하여 아일랜드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북 아일랜드의 푸른 언덕에 자리잡은 아름다운 마을 뉴리에서부터 아일랜드 선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큰 강당을 빌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마을로 보내 저녁에 모임이 있다고 전하게 하였습니다. 칠백명이 몰려왔고 존 테일러가 설교를 했습니다.

테일러 장로와 그의 동반자 중의 한 사람은 뉴리를 떠나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토마스 테이트라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아일랜드 마차를 타고 대개 여행을 했는데 이 마차는 말이 끄는 두 바

퀴 차로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대고 옆으로 앉아서 여행하도록 된 마차입니다. 그리고 일행은 드문드문 오두막이 점처럼 흩어져 있는 넓고 넓은 초원을 걷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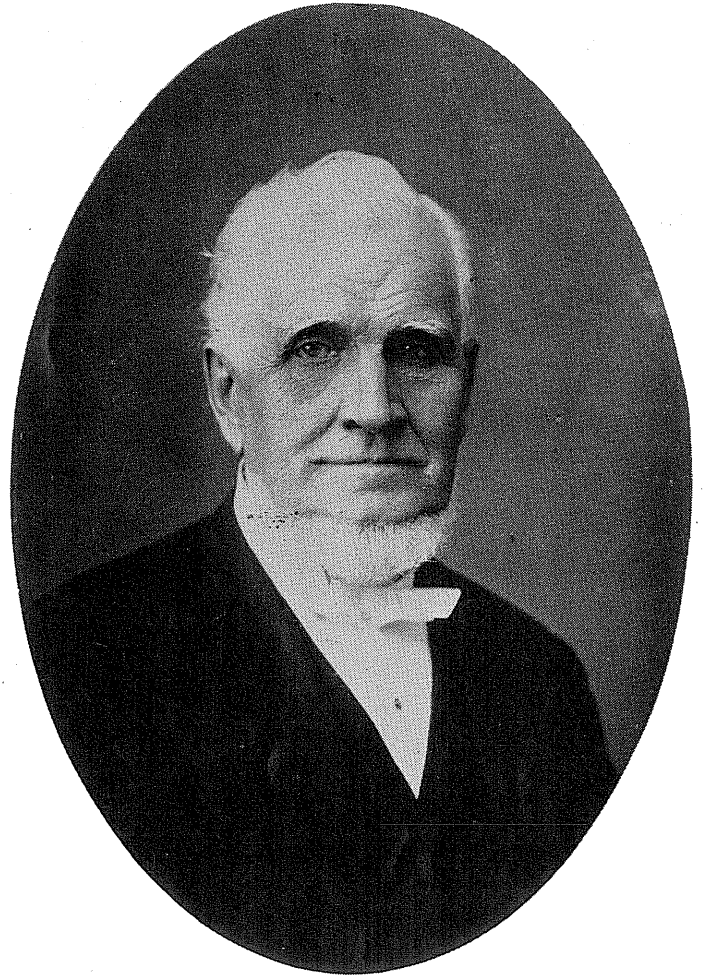
리스본으로 걸어가는 길에서 테일러 장로는 테이트 씨에게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일행이 언덕에 오르자 아름다운 로우 브릭클랜드 호수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토마스 테이트는 기쁨의 환성을 올렸습니다.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오.” (행 8:36 참조) 그 침례가 아일랜드에서의 회복된 교회의 첫번 침례로 알려졌습니다.

존 테일러는 그 후로도 교회의 부름에 응하여 또다시 영국에서 그리고 불란서, 독일, 나부시 뉴욕 등지에서 훌륭하게 선교사업을 이행했습니다. 그는 많은 시를 썼으며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에도 그의 시가 여럿 들어 있습니다.

존 테일러의 이야기 중 그의 감옥 생활, 그러니까 1844년 여름 그가 카테지 감옥에서 겪은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때 요셉 스미스, 하이람 스미스, 윌라드 리처드와 함께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존 테일러는 그 둘 감옥 감방에서 그들을 위하여 “슬플에 잠긴 나그네”를 노래했습니다. 그의 찬송가가 끝난 다음 얼굴에 철을 하고 무장한 폭도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언자와 하이람을 쏘아 죽였습니다. 테일러 장로가 들창 밖으로 뛰쳐나올 때 총알이 날라와 그의 조끼 주머니에 넣은 시계에 명중되었고 그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탄 네발이 그의 다리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서 브리감 영 대관장의 뒤를 이어 1877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백발의 선지자, 통찰력이 깊은 눈의 소유자로서 그는 교회의 대관장이 된 것입니다. 그는 존엄과 용기와 신앙과 친절의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영국 신사”라고 했습니다. 대관장으로서 그는 신전 건축과 선교 활동에 특히 주력했습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은 1887년 7월 25일 유타주 케이스 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로서 생생한 생명의 시



존 테일러 대관장의 가장 애용하던 모토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면 다 필요 없다”

는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끝냈고 그의 호수와 같이 아름다운 생애가 이 세상에서의 막을 내린 것입니다.○

1953년 3월호 칠드런스 후랜드지에서



빛나는 순간

루실 씨 리딩 옮김

● 토마스 맥네일 가족이 도대체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지가 여러 주가 되었다. 들판에서 여러 달을 지낸 이들이 드는 음식이란 충실한 암소에서 짜내는 우유와 들절레 열매 뿐이었다. 때는 1859년 10월 중순이 지난 때였고 소수의 이들 개척자 무리는 겨울이 닥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유타에 도착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러는 중에도 어른들은 솔트레이크 계곡에 집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어린 아이들은 자기들의 고픈 배를 채울 맛있는 빵과 고기와 그밖에 온갖 요리를 꿈꾸고 있었다.

여행자들이 지친 발걸음을 멈추고 유타주 옥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천막을 친 것은 해가 진지 오랜 후였다. 일행은 피곤한 몸을 누이기 전에 무릎을 꿇고 안전했던 하루의 여행을 감사하고 다음날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렸다. 일행은 모두 굶주림으로 기진해 있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 맥네일가의 가장은 옥든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살만한 돈을 벌기위한 일자리를 찾았다. 채 오정이 되기도 전에 어린 것 몇은 벌써 배가 고프다고 울음을 터뜨렸다. 맥네일 여사는 그때 열 두살 먹은 마가렛을 마주 건너다 보이는 작은 집으로 보내어 그 문 앞에 쌓아둔 호박 몇개를 얻어오라고 했다. 달리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문을 두드리자 이내 안에서 부드러운 대답이 들렸다. “들어 오세요, 어서.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가렛은 문안에 들어서면서 금방 구어낸 빵의 구수한 냄새를 맡았고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부인이 부지런히 양푼에 음식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애야 여기 있다. 이 더운 빵을 네가 먼저 가져가렴. 나머지는 내가 가져다 주지. 오늘 아침에 왜 그런지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하라고 꼭 누가 시키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네가 오는 걸 알고 있었어.”라고 그 부인은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

1961년 9월 칠드렌스 후랜드지에서

엘마의 위대성

편집자주 :
줄다리기에 가담하여 상대방 쪽으로
끌려갔던 일이 있습니까?
여기 원위치로 복귀하는 길이
있습니다.

로버트 스펜서

● 엘마 “2세”로 알려진 이 엘마는 교회의 지도자요 대판사였던 그의 부친과 이름이 같았으므로 “2세”라 하였고 그는 모사이야왕의 네 아들과 더불어 “많은 말”과 “많은 거짓말”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은밀히 돌아 다녔다. 이들을 기록에는 “못된 죄인” (모 28:4)이라 하였고, 특히 엘마는 “극히 잔악하고 우상에 젖은 사람”(모 27:8)이라 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엘마는 놀라운 방문을 받았다. 주의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나 엘마의 놀라운 방문을 받았다. 주의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나 엘마의 부친의 신앙과 금식과 기도의 요청으로 찾아 왔노라고 한 것이다. 천사는 계속하여 만일 그가 계속해서 주의 사업을 고의로 방해하고자 노력한다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엘마에게 전하였다.

그후 사흘 밤 낮을 엘마는 저주의 고통을 받아야 했다. 몇년 후 그때의 그 상황을 그의 아들 힐라맨에게 그는 이렇게 기록하여 전하였다.

“.....내가 이처럼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구속하시려 세상에 내려 오시리라고 나의 부친이 사람들에게 예언한 말씀을 들었던 일을 기억하였느니라.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내가 마음 가운데 부르짖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여 쓰디 쓴 고통에 빠져 있고 영원한 죽음의 사슬에 묶여 있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였더니,

보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였을 때 다시는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음을 기억하노니 진실로 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되었으며,

놀라운 기쁨과 빛을 보았나니 내 영혼은 전에 고통으로 가득찼던 것처럼 이번엔 기쁨으로 가득차게 되

었느니라.

나의 아들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의 고통보다 더 쓰며 괴로운 고통은 없었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 말하노니 나의 아들이 그 후에 느낀 나의 기쁨보다 더 감미롭고 아름다운 기쁨도 없으리라.” (엘 36:17-21)

한 아버지의 신앙과 기도가 그 아들로 하여금 영감을 받고 개심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 엘마 2세-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그의 부친의 뒤를 이어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이다. 그도 역시 교회의 대판사로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최고의 지위에 오른 것이다.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는 엘마 2세로부터 참된 회개가 다음과 같지 않음을 배운다.

—못이 박혔다가 빠진 재목처럼 구멍이 뚫린채로다.

—날개가 부러졌다가 치료를 받았으나 결코 다시 날지 못하는 새.

—탈선했다가 다시 궤도에 올라섰으나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기차.

하나님은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회개는 죄 사함을

—온전한 죄 사함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엘마는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사하여 주셨다. 그는 주님의 기름부은 대제사장이 된 것이다. 그는 순종을 배웠고 이 세상에서 그에게 주어진 잠재력을 온전히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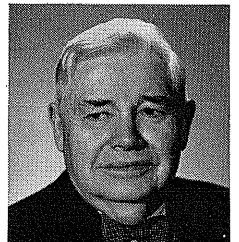
그것이 엘마의 인품의 위대성이었던 것이다. ○

1966년 1월호 청소년 이라에서

누가 청소년인가?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
멕시코 주제 미 대사 역임
1933~1961 부대관장



●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많겠으나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지극히 평범한 것이어서 전에 자주 들어온 것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 두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오늘날의 젊은이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젊은이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소린데 소위 젊은이의 움직임이라고 세상에서 떠드는 문제도 조금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이와같은 세상의 조류에 말려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와는 반대로 적어도 이 교회의 가르침과 정신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높은 목적과 의미와 거룩한 사명을 가르쳐 주었으리라는 확신에서 인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이야기하는 저의는 이후에 있을 오염이나 부작용에 대비하자는 뜻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이를 먹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까지 내가 얻은 체험과 날로 다져지는 신앙과 복음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에 대한 시현, 그리고 순종하는 자를 구원과 승영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원리에 대한 시현을 바탕으로 경진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 칠십의 한계선을 넘어선 사람들이지만 지금도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의 감회를 갖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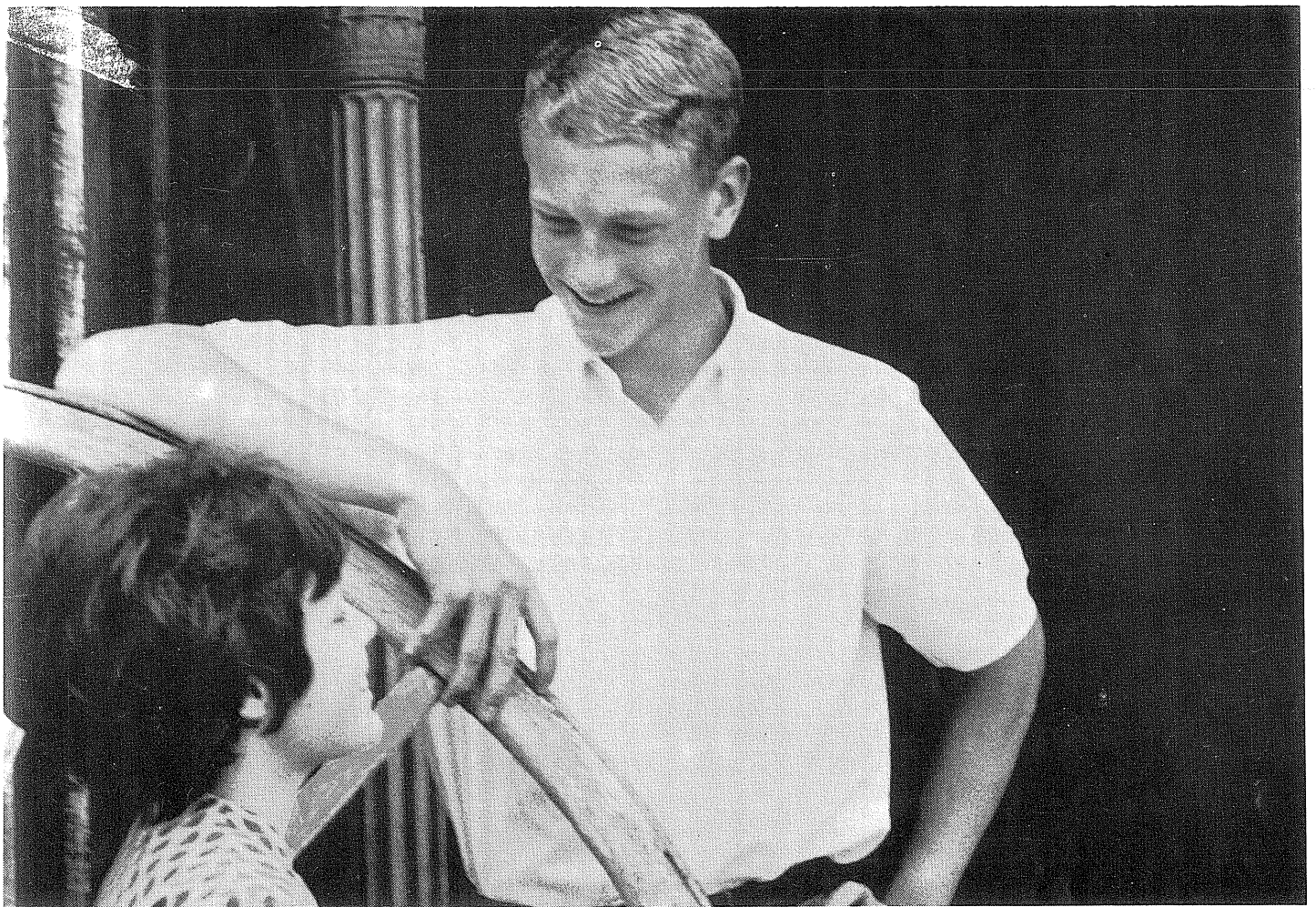
우리처럼 늙은 사람들도 먼 옛날 우리가 젊었을 때 그 찬란하던 날에 뽐내고 장래를 점치며 이야기하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상태를 조금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퇴색한 생각과 어두어진 눈에도 오늘의 당면한 현실이 우리가 자랑하며 뽐내던 꿈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뽐내며

호언하던 것은 우리의 꿈의 한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패기가 왕성하던 그 옛날 더러는 위대한 장군을 꿈꾸며 떠났고, 수완있는 외교관이 되겠다고 하기도 했으며 마키아벨리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개중에는 법률사, 국회의원, 변호사, 화가, 연출가, 정부 고위 각료 그리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근육은 온통 힘으로 엉켜 있었고 우리의 피는 용기의 불꽃으로 타올랐으며, 소망의 높이는 하늘보다 높았고 야망은 포효하는 사자 같았고, 승리는 바로 목전에서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을 자세를 취했으며 우리가 바라는 명성은 미소짓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 시절이었던가! 우리는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 젊은이였던가!

그러하여 우리는 황홀한 채 하늘을 나는듯 했고 꿈을, 세상을 우리들 청춘의 손아귀에 움켜잡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젊음은 쉽게 세상과 더불어 우리를 뒤로 했고 세상은 아직도 우리들의 영역 밖에 서성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우리는 우리가 젊었을 시절에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새삼스럽게 배웠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밤과 낮이 있음을 배웠고 하루는 스물 네시간이요, 일년은 365일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월을 다스리지 못한 채 해가 지나 우리는 늙게 되었음을(적어도 우리의 절반이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일년에는 네 계절이 있어서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비는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고루내리며(마태5:45 참조) 태양은 만민 위에 고루 비치고 날씨가 추울 때는 누구나 다 춥게 되고 더울 때는 그 더위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봄은 씨를 뿌리는 계



질이요 가을은 거두어 들이는 계절이요,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를 얻지 못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씨를 뿌리면 늘 많은 수확을 거둡니다. 늘 수확을 거두되 적은 수확을 거두거나 전혀 걸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땅과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소망이나 충동이나 기분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원리와 법칙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사실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소홀했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자연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지 생각을 했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꿈이 깨면서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었고 우리의 눈은 천천히 열렸습니다. 우리는 전혀 낯선 사실의 세계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장년기를 맞게 되고 생활의 수고와 가정의 임무를 배웁니다. 때로는 욕심과 배를 부리고 거짓과 위선을 배우며 부정직과 기만이 우리를 방문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도 안되고 자연이나 자연의 법칙을 속여서도 안되며 더구나 영적인 법칙을 속이면 안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법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중년이라는 시기는 우리 모두에게 각성의 시기였으며 몇몇은 전혀 소망을 잃고 체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는 중에도 신앙으로 끝까지 의롭게 이겨낸 자들은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간증과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영원하

신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년의 성숙기가 지난 것입니다.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더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가하시는 최고의 은사인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완숙의 과정은 쉽게 지나쳐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무르익은 수확을 거두게 되고 때로는 지나치게 익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우리들, 말하자면 여러분의 부모나 조부모의 연령층의 사람들은 이제는 나이는 노년으로서 옳거나 그르거나 우리는 여러분 속에서 우리들 스스로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나 조부모가 이미 지나오신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온 까닭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도 했고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는 충고도 한 것입니다.

물론 수궁이 가지 않는다고 고개를 젓는 사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것을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자고로 인간의 경험은 인간이 사는 동안의 자기의 노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예언해 왔습니다. 때로는 정치적, 경제적 사태가 돌발하여 마치 질병의 돌발적인 발생으로 생명보험 회사의 체계적인 예상을 뒤엎고 사람들의 사망을 초래하듯이 급작스런 변동을 가져와 경험이 예언한 사실이 뒤늦어진 것으로 생각케 하기도 하나, 대국적인 전체의 진행에서는 인간의 제반사는 눈에 안보이는 어떤 틀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의 성품이 저마다 다르고 개개인의 생활 방법이 모두 다르기는 하나 우주에서 인간의 생태만큼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인생의 이 근본 원리를 청춘인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젊은이의 동태를 기록한 사람의 글을 읽는다면 틀림없이 나는 지극히 제한된 상상력으로서 내가 이야기한 바에 대한 반박이 되는 문귀를 써 놓은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저들은 이미 오늘의 시대는 옛과 다르며 구시대와 관습은 가버렸고 옛 것은 변경되었으며 세계는 바야흐로 새로 펼쳐져서 새로운 소망과 이념과 표준과 포부와 달성과 조화로 술렁이고 있고 세계는 청춘의 것이며 오랜 기다림 뒤에 이 상속의 주인인 청춘이 오고 있다고 적을 것입니다.

오랜 삶의 투쟁을 해야했고 땅의 작은 조각을 얻어보겠다고 발버둥질 한 우리들에게는 세계를 손에 잡는다는 생각은 확실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꾸었던 꿈은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것 만큼 담대하거나 찬란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좌절과 실망을 경험한 나이먹은 이의 머리에 떠오르는 두 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청춘이란 누구입니까, 오늘날을 누리는 여러분입니까, 일년이나 십년 전에 이곳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일년 혹은 십년 후에 살게 될 사람들입니까? 또 다른 의문이란 언제가 청춘이냐? 는 것입니다. 15에서 18, 19에서 20, 아니면 21에서 24, 25에서 30 그것도 아니라면 15에서 30까지, 만일 15부터라면 왜 14는 안됩니까. 아니 그 아래도 안된다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30이 한계라고 하는 경우 왜 31은 안되겠습니까. 아니 이상은 왜 또 안된다는 것이겠습니까? 80대는 어떻게 90대는 어떻게 됩니까? 특히 80대 이상을 들먹이는 방법은 나로서는 아주 반가운, 찬성할만한 방법인 것입니다.

물론 21세나 22세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나이가 더 많은 자들이 쉽게 자기들의 참여를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위로 올라가느라고 젊은 층을 도외시하면 그들은 그들대로 만만치 않은 반발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젊은이들도 여러분처럼 나아가 땀을 흘리며 일해야 하고 여러분이 수고로서 이룩한 것을 저저 갖게 하지는 않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청춘의 무리가(누가 청춘이고 언제까지가 청춘인지 확실치는 않지만)어려운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고 땅과 가축과 가옥과 온갖 소유를 인계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랜 경험과 숙달로서만 습득이 가능한 그러한 기술로 처리해야 할 일은 어떨까요? 연극 대본을 예로 들어 봅시다. 청중은 원하는 누구나가 다 섹스피어같이 된다고는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대중은 늘 대중으로서의 기호를 갖습니다. 그림이나 조각의 경우도 그렇고 음악, 법률, 기타 사업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원리가 학교나 교회 기타 활동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뢰와 믿음이 가는 사람을 중책에 앉히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력, 신뢰, 확신 등의 요소는 성장의 도가 아주 느린 것들입니다.

우리도 배울 수 있다고 호언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물론 여러분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다는 대답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배움 그 자체가 시간이라는 조건을 요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세월따라 흐르고 그 세월이 청춘을 앗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주인이 청춘이어야 한다면 청춘이 나이를 먹음으로서 스스로 상실의 주인이 됨도 어찌지 못할 것입니다.

개중에는 내가 다분히 물질적인 문제를 언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는 높은 차원의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는 자기들이 새로운 경제 원리,

신정치 제도, 새로운 국제관계법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노인에게는 필요한 옛 방식으로 처리할 일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감히 내가 확신하건대 적어도 우리의 정치, 경제, 국제관계 등의 제원리와 표준은 이제까지 우리가 가졌던 최상의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최상의 여지가 있을 만한 약점을 지닌 채 국가나 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세기를 두고 부족한 면은 제거되었거나 보완되었고 최상 최선의 것만 살아 남게 된 것입니다.

세월은 청춘에게, 우리는 갖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문제를 가져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활개치며 교문을 나서던 때는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자유를 위협받지는 않았었습니다. 세상은 지금 도처에서 청춘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법상태, 무질서, 탐욕, 소란 등이 호시탐탐 청춘을 노립니다. 자유 정부, 즉 민주 정부는 지금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려면 어제의 청춘과 오늘의 청춘과 내일의 청춘이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거짓을 우상화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이며 거짓삶, 거짓 표준, 거짓 이상, 거짓 교리 거짓 동반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는 남의 슬픔이나 즐거움에 편승하여 내 인생의 기쁨이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이 세상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지식은 내 것과 너의 것의 차이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인간은 남의 권리와 유익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자기의 권리와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자유나 안정이나 평화가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여진이 깨질 때 문명도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이 모두 이 점을 깊이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내면의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내면의 진리가 발견되거든 그대로 행동에 옮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된 후 1세기를 두고 “우리는 정부가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로운 행사, 재산의 소유권, 그 관리 및 생명의 보호를 보장하는 등의 법률을 제정하며 이를 침범 당하는 일 없이 유지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정부일지라도 평화롭게 존립할 수 없음을 믿는다.”(교성134:2)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념에 어긋나는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국가일 것입니다.

특히 위에 언급한 말씀 가운데 다음의 요점을 특히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개인이 생활의 표준을 어기거나 똑같은 과오를 계속해서 범하는 경우는 그때도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서 전체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화와 도난과 강도, 살인을 막으려는 사회에 이러한 사악한 풍조가 넓게 퍼져 마침내 사회의 질서와 양심을 삼켜버리게 된다면, 이러한 죄가를 여하한 방법으로 합리화하려하고 또 여하한 목표를 설정하려 한다 하더라도 사악한 풍조를 표준으로 삼으려 하는 사회는 사회로서의 조직 능력과 구성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표준이 옳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이 그곳에서 떨어져 나가고 또 어떤 경우는 표준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논발을 팔아서 그곳으로 달려듭니다. 오늘날의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 바로 이 후자의 경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난국을 타개해 주기를 바라며 이로써 인류의 자유와 양심이 구제되고 주님의 사업이 이 땅에서 계속되어 인간의 영혼이 구제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937년 8월호 이라지에서

교회가 진리의 독점권을 가졌는가?

존 에이 윌소

십이사도 정원회 (1911—1952)
이라지 편집장 (1931—1952)

● 이와같은 질문은 회복된 그리스도 교회의 주장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진리의 독점권이란 가능한 모든 진리의 독점 소유를 뜻하며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에게는 진리의 소유나 진리의 유익에 참여함을 금지시킨다는 뜻이겠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으로부터 떨어져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의 빛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밝게 비쳐 준다는 가르침은 요셉 스미스때부터 가르쳐 졌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자는 그것이 교회 안에 있거나 혹은 밖에 있거나 간에 모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도서관에서 탐구하거나 실험실에서 탐구하거나 열려진 대 자연 속에서 탐구하거나 간에 열심히 구하면 만끽할 수 있는 진리의 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너그러우십니다. 교회는 인류에게 진리가 널리 소개됨에 따라서 인간의 기쁨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아는 까닭에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의하여 진리가 탐구되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리에는 여러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는 하늘과 땅의 상황과 연결된 물리적인 진리로서 이것에 의하여 만물이 움직이고 운영됩니다. 이 진리는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인류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지적인 축복을 허가했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발견은 근대 문명을 가져오게 했으며 이로서 빈곤

한 가정에도 위안과 빛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더 높은 진리, 이를테면 인간의 행위를 좌우하게 하는, 바꿔 말하면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지식의 온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를 일깨워주는 진리도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간의 관계를 알게하는 진리도 있고, 과거의 진리를 설명하고 오늘의 목적을 가르치며 인간의 미래의 운명을 예언하는 진리와 인간이 노력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치는 진리 등이 있습니다.

이 나중번의 진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세우는 구원의 계획을 이룹니다. 복음은 주님의 뜻과 의지의 산물입니다. 복음은 우주를 통행하는 거룩하신 이의 뜻을 가르치며 온갖 율법과 원리를 포함하며 모든 자연의 역사를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이와같이 온전한 복음은 온갖 진리의 모체가 되고 근간이 되며 복음 속에서 모든 진리가 정리된 조화를 찾습니다. 진리의 모체로서 복음은 모든 진리를 다스리고 인간의 현재와 미래의 복리를 위하여 진리를 적재 적소에 배치합니다.

다른 진리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진리도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저들의 커다란 위안이 되는 이 근본적인 지식을 조금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받드는 교회는 얼마큼씩은 이 높은 진리를 다 갖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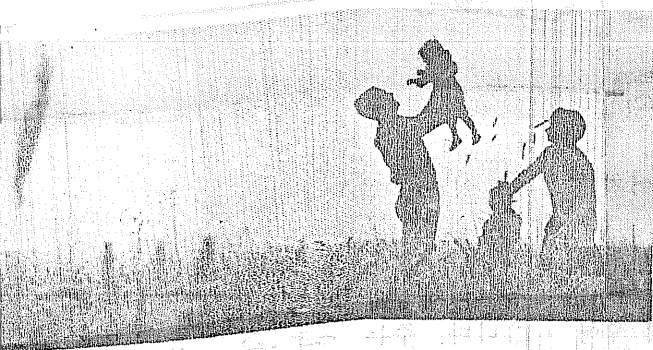
다. 이것이 말일성도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복음은 주님의 권세로 운영됩니다. 주는 인간을 이 세상에 두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주는 여러 세대를 두고 인간을 보살피 주셨으며 인간의 배도로 인하여 교회의 재건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교회를 세워주셨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수단으로서 신권이라고 일컬어지는 권위가 복음과 더불어 주어졌습니다. 이 권위를 가진 교회라야 완전한 교회이며 완전한 교회는 오직 하나 밖에 없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직결되는 진리와 오직 하나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일으켜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이며 신권도 하나이며 복음의 온전한 진리를 갖추고 있는 교회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승영예의 온전한 구원에 필요한 근본이 되는 완전한 진리를 우리만 갖고 있다는 뜻에서라면 이를 독점권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든 인류를 주님 앞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발전의 길로 인도하는 온전한 지식을 인간에게 가르쳐야 하는 높은 사명을 겸허하고 감사한 뜻으로 또 철저하게 이행하는 교회입니다. ○

1939년 5월호 이라지에서



가정의 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이 태어나를 안에서 과거의 밤을 주체 철저히 논의되었던 가정의 밤을 주체로 말씀을 드리라는 명을 받았읍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그토록 쉽게 잊어버리고 그토록 등한히 여기며 소홀하게 취급하여 자주 경종을 울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며 우리가 가르쳐지고 충고된 것을 고맙게 느끼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주변과 됃됨이가 그렇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상의 생활 여건하에서는 대개 사람은 도전적입니다. 싸워야 할 전쟁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임무와 책임이 허다합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렇게 저렇게 걸려 이행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의 밤이라는 주제가 몇년 전 처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억이 분명치 않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가정의 밤 순서를 충실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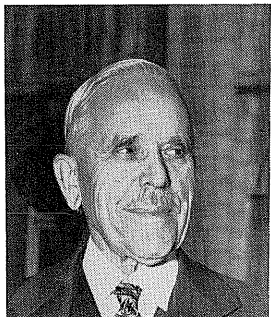
게 지키기만 하면 가정을 떠나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시온의 장막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화평과 사랑과 기쁨과 순결이 충만하여 우리의 가정은 참으로 이상적인 가정이고 부모는 자녀를 선과 기쁨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영광을 얻으며 그리하여 우리의 발이 실족하여 올가미에 걸리거나 간악한 함정에 빠지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과 또한 스테이크와 와드에서 가정의 밤을 가지라는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실제로 가정의 밤을 갖는 성도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는 하나 소수의 이 성도들이 형제 자매 여러분께 가정의 밤을 가정으로써 얻은 축복에 관하여 여러분께 간증할 수 있을 것을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한 것은 실제로 와드에서 실무를 맡은 사람들도 이를 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가정의 밤을 주제로 여러 가지로 모임을 갖기도 했고 교회의 공공 집회를 가정의 밤을 갖는 날과 중복되지 않게 가져서 성도들이 이날은 가족과 함께 가정의 밤을 갖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말을 다르게 하고 머리 속으로 다

른 것을 생각한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성 68:25-28 참조)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참되고 진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정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다 더 큰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가장은 참되고 신실하며 헌신과 충성을 온 가족 곧 아내와 자녀에게 쏟아야 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가족을 정성을 다하여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은 자기의 온 생애를 마땅히 가족을 위하여 바쳐야 할 것입니다. 불친절하거나 참을성이 없어도 안 되며 사랑의 위대함과 인내와 슬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내를 동반자로서 친구와 조력자로 대접해야 할 것이며, 자녀를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삶의 사랑스런 목적으로 대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정의 어머니도 남편과 자녀에 대한 임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자녀도 부모에 대한 책임을 저버려서는 안되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복음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뜻을 갖는다면 우



조셉 에프 메릴 장로

12사도 정원회 (1931~1952)



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일주내내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단 한 시간을 일주일에 한번쯤 어떻게 해서라도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이 가장의 사명감을 바로 깨닫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본분을 다하며 모든 자녀가 순종하는 가운데 이 가정의 밤의 권고로 받아들여 지킨다면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기쁨과 따뜻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가정은 규모가 크고 가족의 연령도 작은 유아에서 어른까지로 되어 있어서 책임도 각각이고 하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일 시간을 계획한다는 것이 어려운 줄도 압니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옛말을 나는 잘 기억하고 있으며 그것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시간, 가족간의 사랑을 키우고 저들에게 복음의 뜻과 원리를 가르치고 이해하게 할 그 시간을 마련할 수 없단 말입니까? 그런 부모는 가족과 함께 하여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을 자녀와 나누지 못하는 부모요 부모로서의 영향력을 갖지 못한 부모인 것입니다. 참으로 부모는 자녀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신뢰할 수도 있고 자녀가 자기들의 문제와 슬픔과 기쁨을 기꺼이 부모

와 나누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혹 여러분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느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각성하여 사악함과 사악함을 쫓는 온갖 요소를 덜어버리고 전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온갖 열을 기울여 일에 착수해야 하겠습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아지고 있으므로 그의 발악은 극을 이룰 것이며 우리가 활동적으로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올가미에 걸리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고를 받아들여 이행할 수 있도록 기도도 간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월요일을 가정의 밤의 날로 권고합니다. 가정이나 지부가 다른 가정과 함께 모임을 가져도 무방하겠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관습이 될 때까지 월요일을 가정의 밤으로 열심히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자녀는 성장하여 부모만 남아서 무엇을 하겠느냐고 할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가정의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그 연령층의 폭이 넓거나 간에 찬송과 노래와 이야기와 게임과 기도와 지시와 경험을 함께 나눌 기회를 갖는 것은 가능하며 그렇게 하므로써 온 가족이 유익함과 기쁨을 얻게 될 줄 압니다.

비록 자녀가 없는 가정이라도 가정의 밤 프로그램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기 아내 대접하기를 잊은 그런 남편도 있을까요? 아내가 홀로 있는 시간이 일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남편이라면 아내 대접하기를 그친, 동정을 받아야 할 처량한 남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정의 따스함을 집 밖으로 쫓아내는 사람입니다. 사실상 그런 가정은 이미 가정이 아니겠지요. 다만 사람이 거처하는 가옥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곳을 가정이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제 아무리 둘러 보아야 가족을 즐겁게 또 복되게 할 일주의 한 시간을 바치지 않을 아무런 이 유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의 밤을 갖기만 한다면 우리의 가정에는 사랑과 단합과 화평과 만족과 그밖의 풍요로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1918년 1월호 이라지에서서

상호 부조회의 조직

회장 벨 에스 스페포드

● 교회 기록 역사에 보면 1842년 1월 6일자로 이 때의 교회 역사를 기쁨의 시대라고 하신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새로운 시대가 찾아와 복된 나날로 연결되며 성도들은 친절과 겸양으로 인도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신전을 건립할 수 있는 방편을 얻는 축복을 얻은 것 같다. 성도들은 또한 신전을 완성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날이 교회의 입장으로나 이 세상의 입장으로도 가장 복된 중요한 날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그날이 시온의 성도들을 기쁘게 할 날로 기다리고 있다…… 참으로 이 시대는 말일의 성도들이 오래 두고 기억해야 할 날이다…… 참으로 모든 것이 복음의 온전함과 경륜의 시대 중의 경륜의 시대의 온전함을 이루고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고 있는 때인 것이다”(교회 기록 역사 4:492)

이 말씀은 진정 그 시기가 교회사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즐거움이 되던 시기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 시기가 오래 두고 기억되어야 할 시기로 되게 한 많은 사건이 이때에 있었다.

교회의 성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사건 중의 하나가 1842년 3월 17일 있었던 자매를 위한 상호 부조회의 조직이었다. 주님은 이때를 주의 딸들에게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저들을 보다 온전히 발전시키고 교회와 교회의 성도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조직체를 갖게 해주셔야 마땅할 시기라고 느끼신 것 같다.

교회의 자매들은 주님의 이러한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충

분히 입증했다. 저들은 열심으로 경전을 상고하며 예언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대로 순종했다. 저들은 또 교회의 사업을 도우며 나부 신전을 건립하는데 있어서도 여자가 해야 할 일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이들이 그토록 열심히 봉사하며 또 봉사할 기회를 구하였던 까닭에 드디어 주는 예언자의 손을 빌어 이 조직을 허가하셨고 이로써 엘리자 아아르 스노우 자매는 정관을 작성하게 되었다.

상호 부조회가 조직되었던 경과를 사라 엠 킴벌 자매는 자매들이 정말로 나부 신전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부녀회”를 만들 계획을 했노라고 술회했다.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이것이 실현되는 까닭은 당신들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자매들에게 저들의 간청과 봉사가 주님께 열납되었다고 전해 주시오. 주님은 문서로 작성된 정관보다 더 훌륭한 것을 자매들을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모두 초대하여 다음 목요일 오후 우리 가게 근처 만스닉 홀에서 나와 몇몇 형제들과 만나게 해 주시오. 신권의 반차에 좇아 신권으로 자매들의 회의를 조직하겠오.”(상호 부조회 백주년지 14페이지)

1842년 3월 17일 목요일 약속 장소에 모인 18명의 자매들은 기쁨과 소망과 열의로 온통 들떠 있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자매들은 예언자가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으며 이 말씀을 우리 자매들은 오래 두고 기억할 것이다. “나는 이제 이 회의가 회장과 보좌를 지도자로 정관에 의하여 조직되었음을 공포합니다.”(1942년 3월호 상호부조회

지 151페이지)

이 역사적인 순간에 존 테일러 장로와 윌라드 리처드 장로가 예언자와 동석했으며 자매들에게 전하는 말씀에서 “이제 이 조직이 하늘의 법에 좇아 조직되었음을 눈으로 보니 기쁜 마음 한량 없습니다”(1942년 3월호 상호 부조회지 151페이지)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의 법이 곧 거룩한 법을 말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상호 부조회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조직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상호 부조회 창립 백주년 때에 대관장단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다.

“우리는 상호 부조회의 자매들이 상호 부조회의 조직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조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는 이 조직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여시고자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방문을 받은 바 있는 예언자에게 임하신 주님의 영의 지시에 따라 조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성 단체로서 이와같은 근본을 갖는 조직체는 없습니다.”(상호 부조회 백년제지 7페이지)

사라 엠 킴벌 자매는 이 교회가 이러한 여성의 조직을 갖추었음으로서 비로서 완전한 교회가 되었다고 하시며 이를 인도하신 예언자의 공적을 크게 치하하는 기록을 남겼다.

예언자가 그 기초가 되신 상호 부조회는 이제 그 생애와 봉사를 이 백주년으로 잇는 길을 치달리고 있다. 지난 121년을 통하여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조직된 단체를 통하여 여

성들의 봉사하고 이야기하겠다는 의욕이 통계상으로도 크게 향상되었음이 들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변화보다 더 큰 변화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상호 부조회가 처음 조직되었을 때만 해도 공식에서 이야기를 할만한 용기를 가진 여성은 많지 않았으며 여성 단체를 조직하겠다는 뜻을 실행하려는 여성의 수효는 더욱 적었다.

상호 부조회가 창립된 이래 세상에는 그렇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부조회는 예언자가 정해주신 조직 체제나 활동 목적, 기타 활동 규율을 원형 그대로 지키고 있으며, 121년 동안이나 창립 당시의 모습과 정신을 이어가고 있고, 시대의 변화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효과적인 활동을 벌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상호 부조회가 하늘의 법에 좇아 세워졌고 인간의 법에 따르지 않았음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고 본다.

상호 부조회는 특히 나부에 있던 시절에는 계속해서 예언자의 감리하에 있었고 그의 지시와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언자와 그의 후계자들이 계속하여 이끌어 가셨다. 예언자는 지시를 통하여 자매들에게 이 조직이 신권과 신권의 반차에 좇아 조직되었음을 분명히 밝혀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이 경륜의 시대에 교회의 제반 문제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택하신 이를 통하여 신권의 반차에 따르는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호 부조회의 역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자는 임명

되어 성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 회원들이 추대한다고 되어있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예언자는 상호 부조회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중에도 모든 여성에게 문호를 열어 예언자께서 지시하신 대로 부조회 회원 전체의 의사에 좇아 가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셨다.

자매들이 예언자에게 제출한 회의 정관과 규정에 관하여 예언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회장단 자매들의 결정을 정관으로 삼을 것이며 그들의 결정을 곧 부조회의 규정으로 삼아 이에 따라 행하도록 할 것입니다.여러분의 회의록이 곧 앞으로의 제반 활동의 안내가 될 규율과 정관이 될 것입니다.” (상호 부조회 백주년지 15페이지) 상호 부조회의 처음 출발과 질서 확립은 이러했으며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예언자는 이 경륜의 시대에 여성을 위한 길을 이와같이 열어 주셨다. 그는 다음과 같이 귀중한 말씀을 전하셨다.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열쇠를 드립니다.이제로부터 지혜와 예지가 가득하게 내릴 것입니다.가난과 궁핍한 가운데 지내는 자들의 보라 복받는 날이 시작되는 것이며 저들은 기쁨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축복이 쏟아지기를 빌 것입니다”(교회 기록 역사 4:607 참조. 벨스 에스 스페포드 자매 저 “Wom an Enobled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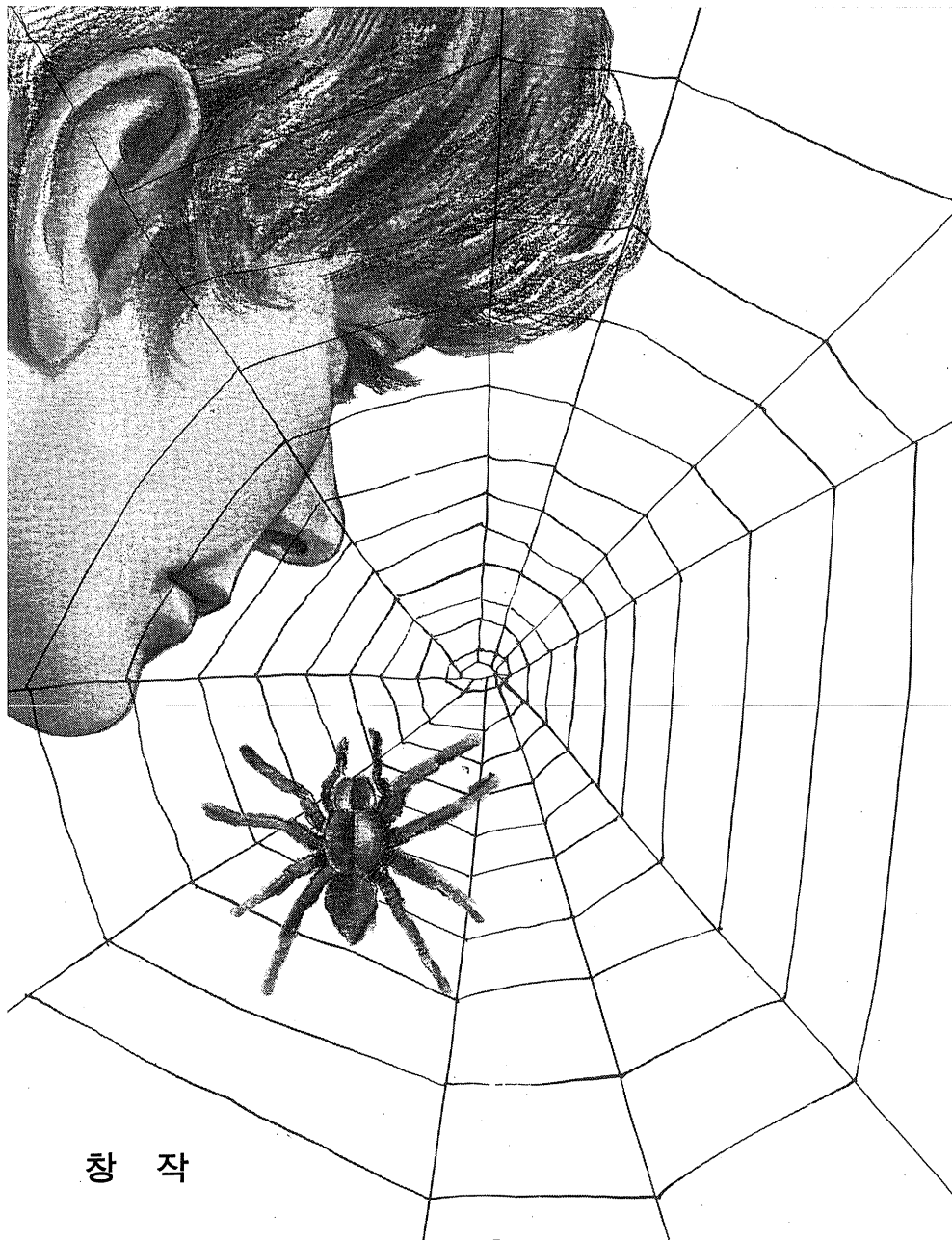
이와같이 상호 부조회가 거룩하신 하늘의 뜻에 의하여 영감과 예지의 지시대로 세워진만큼 그 사명도 거룩하신 이의 뜻에 의하여 지시된 것이다. 상호 부조회의 사명을 간략하게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영혼을 구한다.
2. 회복된 거룩한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강화시킨다.
3. 슬픔에 잠긴 자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4. 자매들의 재능과 능력을 개발시킨다.
5. 가정과 가족 생활을 강화시킨다.
6.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신권을 돕는 조력자가 된다.

참으로 상호 부조회는 이 말일에 예언자를 통하여 받은 자유 의지에 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이상 이룬 세상의 여성과 나누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으며 주님이 가르치신 바 자유와 삶의 길에 대한 지식을 나누어야 하는 책임을 갖는다. 이러한 사명과 임무를 상호 부조회만큼 무겁게 짊어지는 조직이나 단체가 이 세상에는 또 없는 것 같다. 아울러 이 조직만큼 강하고 의롭고 현명한 지도력을 갖춘 단체도 없다. 우리는 신권의 지시에 따라 합당한 태도로 일해야 하며 거룩한 계시로 지시된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일해야 할 것이다.

세상의 변화나 시대의 변천에 아랑곳없이 주어진 이 거룩한 사명을 지킴에 있어서 상호 부조회는 여성의 방패로서 사악함에 맞서 굳건히 서야 할 것이다. 상호 부조회는 참으로 온 세상 여성에게 인도하는 별이 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 ○

1963년 11월호 상호 부조회지에서



창 작

소년과 거미줄

노라 앤 리차드슨
테일 킬번 옮김

● 마르다는 김이 서린 창문을 닫고 다르시가 점심 가방을 휘두르며 정원을 가로 질러 뒤통거리며 뛰어 나가는 것을 내다 보았다. 그녀는 그가 행여 늦을가봐 걱정을 했지만 오늘 아침엔 정시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까지라야 아무가 걸더라도 이십 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데 기여코 마르다는 오늘

아침 그를 시간에 맞추어 가도록 한 것이다.

다시 옹기 우유 그릇 앞에 돌아와 젖는 막대에 손을 대니 마음이 저절로 어두어졌다. 물론, 다르시는 이제 겨우 일곱살이 되어가고 있으나 그의 성격을 형성시켜 주는 문제를 생각할 때가 아직도 먼 것은 아닌 것이다. 그는 착한 아이였지

만 무언가 좀 우울한 때가 있었다. 잡일을 맡기면 의례히 처음 시킨 일은 완전히 제쳐놓고 다른 것에 열중하여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젊은 마르다 리드는 그의 임무를 아주 심각하게 처리해 갔다. 특히 사년전 그녀가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슬픈 전보를 받은 이래 그녀는 더욱 근면해졌다. 마을에서는 모두 그를 부지런하고 억척스러울만큼 열심히 일하는 부인이라고 공인했다. 마르다에게는 전혀 덤벙 덤벙한 때가 없었다. 그것이 마르다 스스로도 긍지로 느끼는 그녀의 평판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염려하는 것은 장차 다르시의 평판이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지각생, 지각생, 지각생!” 우유를 젖는 막대기로 바닥을 긁는 소리가 꼭 지각생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 같았다.

갑자기 그녀는 이상한 충동을 느껴 밀짚 모자를 집어 쓰고 마당으로 급히 내달랐고 그 서슬에 게으름을 부리던 닭 떼가 요란스럽게 빠른 동작으로 양 옆으로 갈라 섰다. 이번 주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늦다니! 왜 그럴까. 그것은 확실히 불명예다! 그는 넉넉히 시간을 맞추어 나간 다르시가 정각 전에 학교에 들어서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다르시의 팔을 잡고 곧장 학교로 들어선다는 생각을 하다가 가을 아침 맑고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며 일단 머리 속으로 생각하던 것을 걷어 치웠다. 지름길은 온통 나무 숲으로 되어 있어서 조심스럽게 숲가지를 헤치고 걸으며 그녀는 참으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싱그러운 숲의 내음에 취하였다.

그녀는 다르시가 한 손에 점심 가방을 든 채로 개울 옆에 서서 물속에 있는 무엇인가에 눈을 빼앗긴 채 정신없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녀는 화가나서 곧장 달려가 그를 잡으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처 그에게 채 이르기 전

에 그가 얼굴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의 빛이 역력하였고 그러한 그의 모습은 흡사 그의 아빠의 축소판이었다. “취!” 다르시가 말했다. “저것 좀 봐요!” 개울 건너편 숲에 어떤 움직임이 보였고 사향쥐 한 마리가 눈을 내밀어 사방을 살피는 게 보였다.

“아니, 엄마가,” 다르시가 다시 네었다. “오늘 아침엔 도대체 어떻게 된거죠?”

작은 동물은 천천히 몸을 돌려 개울 건너편 은신처로 달아나 버렸다.

“나는 저놈을 매일 만나죠” 마치 그는 일이 그것으로 끝났다고 느꼈는지 이렇게 설명했다. “때로는 내가 구슬을 물에 던지고 저놈은 그 위를 수영해가요. 꼭 게임같은 걸요—” 엄마의 눈빛은 그리 달가운 것이 아니었다. “그놈은 엄마를 무서워 한 거예요. 그놈이 어른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줄 몰라서 미안하구나! 다르시 리드, 어서 점심 가방을 똑바로 챙겨 들고 곧장 학교로 가야겠어!”

“아—학교요. 그럼 엄마 안녕.”

“내가 더 따라가며 감시를 할테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로만 엄포를 한 셈이었다.

“네 엄마……” 그는 그녀 옆에서 향내나는 숲 길을 걸어 나갔다. 숲은 역시 아름다운 곳이었다. 숲을 거닐며 마르다는 도대체 자기가 홀로 숲을 거닐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다. 참으로 이렇게 홀로 숲을 걸어 본 것이 얼마만인지 모른다. 늘 일이 많았으니까. 닭도 돌보아야 했고, 젖소도 돌봐야 했고, 우유를 젖는 일, 냉각시키는 일, 청소 기타 빠다를 걸르는 일 등.

갑자기 그녀는 아들이 곁에서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르시! 다르시 리드!”

그녀는 약 오십보썸 뒤에서 잔뜩 웅크리고 길을 내려다 보고 서있는 아들을 발견하였다. 그녀는 아들 곁으로 돌아갔다. “이런 일이 있을

까—”

마르다는 땅을 내려다 보았다. 개미 떼가 부산하게 서로 부딪고 지나치며 건너편에 이르려고 무엇인가를 부지런하게 하고 있는 것이었다.

다르시는 개미 떼가 건너 갈 수 있도록 나무 가지를 꺾어 가로질러 주고는 점심 통을 열어 빵조각을 뜯어 그곳에 던져 주며 “자 지진이다 꼬마들아 달리란 말야. 중국 지진이다.”라고 외쳤다.

중국과 같다니?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개미는 참 묘한 놈이다. 집체같은 빵조각을 부지런히 나르며 놀라움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전혀 상관치도 않는다.

먼저 일어 선 것은 다르시였다. “결국 엄마한테 한 가지는 보여 드렸군요.” 그는 저만큼 앞 질러서 작년에 잣송이가 떨어져 이제 다시 싹을 내는 곳으로 가며 소리를 질렀다. “엄마 이 쪽 숲으로 와요.”

그는 햇빛에 반사되어 은빛을 내는 정교한 모양의 거미 줄을 보고 숨을 죽였다.

“엄마, 한번 보세요.” 그는 낙엽을 돌돌 말아 거미 줄로 치켜 던졌다. 은빛 거미 줄이 반짝했다.

마르다는 입을 크게 벌렸다가 다물었다. 커다란 거미가 줄을 타고 춤추듯 내달았다. 그리고는 이내 나무잎의 정체를 발견했다는 듯 조용해졌다.

“거미는 파리를 좋아해요” 다르시는 통나무 위로 재빨리 손을 날려 파리를 잡아서는 거미줄에 갖다댔다. 이번에도 거미는 급히 내달아 파리를 움켜 잡았다.

“거미는 파리를 먹고 개구리는 거미를 먹거든요. 그런데 또 뱀은 개구리를 먹는단 말예요.” 그는 아주 진지하게 설명을 했다. “이것이 자연의 역사예요 엄마.”

“그래.” 그녀가 대답했다. “그런 것 같구나.” 그토록 조용한 표면 위에는 밤 낮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투쟁의 움직임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녀의 마음은 편안해 졌고 편안해진 그의 마음 속으로 남편 다르시가 다가 왔고 그와 함께 보낸 어떤 여름 숲 길에서의 일이 생각났다. 그는 남편의 검은 머리털과 갈색 눈빛 그리고 친절한 목소리까지도 잘 기억하고 있었다. 만일 우리가 이 조그만 땅의 신비를 안다면 곧 우주를 아는 것과 같아 라고 그는 숲 길에 조그만 삼각형을 그려놓고 이야기했던 것이다.

먼데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이 어디 종인지조차 그녀는 바로 깨닫지 못했다.

“이크, 이거 학교 종이가구나!” 다르시가 조그맣게 외쳤다.

“서둘러라.” 다르시는 점심 가방을 내주며 소리 질렀다. “뛰어가라! 애야 오늘도 또 늦겠구나!”

그녀는 작은 그림자가 시골 신작로에 뛰어 오르며 일으키는 먼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다시 통나무에 앉았다. 거미는 가고 없었다. 파리도 가고 없었다. 거미 줄만 있던 그대로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작은 땅 조각의 진리만 안다면 하나님, 아들이 자기 아버지처럼 겸허한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미소했다. 따뜻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하루를 맞을 힘을 안겨 주는 것 같았다. “네가 바로 자연의 역사야” 그는 이미 보이지 않는 거미에게 중얼거렸다. 그녀에게 다시 잡다한 삶의 수고가 연결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전과는 의미가 달랐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빠다를 젖고 닭과 젖소를 돌보고 해야 했지만, 하나의 인간의 승리의 노래를 낭제하는 눈에 안보이는 수 없는 승리가 연결된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아마도 나는 나 스스로의 작은 승리를 쟁취한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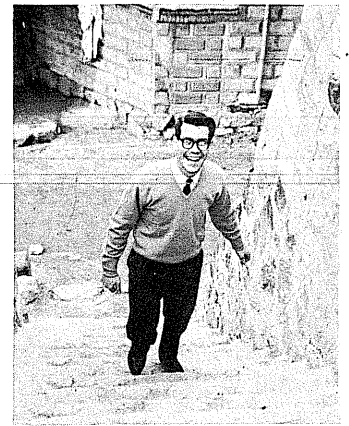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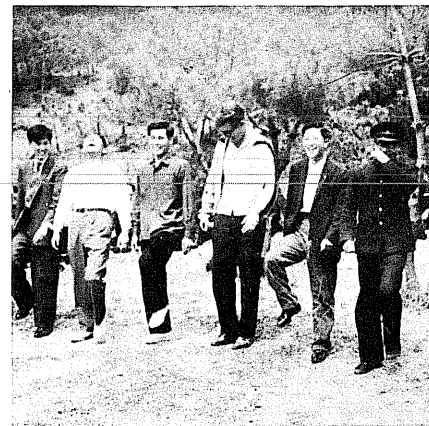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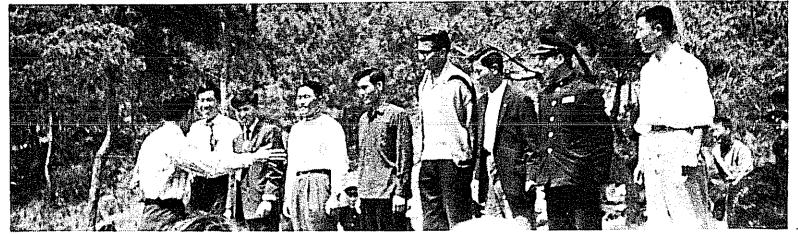
1952년 9월호 이라지에서

다음 선교부장을 소개합니다

선교부장 서 현 보



좌: 최근의 브라운 형제 가족. 우상, 중앙: 1960년 5월 안양의 송별 피크닉에서. 우하: 1959년 유락동 동부지부에서.



● 어느덧 한국 선교부도 제 4대 선교부장을 맞이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지난 5월 1일 대관장단은 신임 선교부장으로 아이다호주 포카텔로시에 거주하는 로웰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가 내정되었다고 하는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국 선교부를 위해서는 더할나위 없는 축복이며 이로써 교회의 위대한 사업은 신임 선교부장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계속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운 선교부장은 아이다호 주립 대학교 종교 학원에 있는 말일성도 학생회 활동을 돌보는 책임자로 계시며 이 학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분은 다년간 세미나리와 교회의 종교 학원 프로그램에 봉사한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임 선교부장의 고향은 아이다호주 프레스톤이지만 이 분은 캘리포니아주 샌 로렌조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유타 주립 대학교에서 이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캔사스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브라운 선교부장은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단의 보좌와 고등 평의원으로서 교회에 봉사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 분은 선교부장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아이다호 주립 대학교 스테이크 부장단의 보좌를 역임하고 계셨습니다.

1957년에서 1960년 사이 브라운 선교부장은 한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셨으며 지방부장과 북극동 선교부의 선교부장 보좌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출한 키에 안경을 끼신 이

선교부장이 선교사로서 현재 여러분의 지도자 가운데 몇분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브라운 선교부장은 한국에서 임기를 마치고 귀환하신 뒤 여러 해 동안 한국 선교부의 귀환 선교사 단체에서 활약하시면서 한국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물론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도 계속 간직해 오셨습니다.

브라운 선교부장은 유타주 로간시 출신인 캐롤 에버 자매와 결혼하여 현재 다섯 자녀를 두고 계십니다. 브라운 자매는 주일학교와 유년 주일학교 지휘자를 역임하셨고 초등학교 교사와 지부 상호 부조회 회장단과 스테이크 상호 부조회 임원으로서 봉사하셨습니다.

한국에 오게 되는 이 두 분의 재능이 교회의 모든 조직의 활동을 향상 발전시키는 데에 크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슬로버 자매와 본인은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선교부를 아끼는 이 분들에게 우리의 과업을 물려 주게 되며 따옴으로 심히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관대하게 마음을 다하여 신임 선교부장과 그의 가족을 지지해주시리라는 것과 또한 환영하시리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메시지와 함께 신임 선교부장과 그의 가족 사진을 두 장 소개합니다. 네 딸의 이름은 셰리, 캐더린, 데보라, 수잔이며 아들의 이름은 로웰 브라운 이세입니다. ○

자 기 탐 구

1951년 3월



리차드 엘 이반스

● “원수의 이야기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조사 평가하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조사해 보기로 합시다. 여러분에게 신뢰하는 사람을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스스로를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의 궁핍히 여김을 입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집이나 헛간이나 금고에 잠을쇠를 채워두지 않는다면 그런 곳에 들어갈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그 안에 걸어 들어가겠습니까? 세상에 재판도 없고 감옥도 없고 법도 없다면 여러분은 취할 권리가 없는 것에 손을 대겠습니까? 여러분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을 섬길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섬길 때처럼 편견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남에게서 물건을 살 때—물건을 여러분이 간청하여 살 때나, 팔지 않아도 될 물건을 살 때 그 값을 공정히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계약을 할 때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계약을 문서화한 계약만큼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남이 잃고나서 여러분이 아니면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곳에서 그 물건을 찾았으며 또 남이 그 물건을 찾은 것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머니에 넣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와 아니 오라고 대답될 문제를 놓고 절충하려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친구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저들이 주변에 없을 때에도 옆에 있는 것처럼 합니까? 여러분이 잘못을 범했을 때 여러분은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합니까, 아니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잘못되지 않은 듯이 행동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 알려진 곳에서 받고 있는 신뢰를 다른 먼 곳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빛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위하여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합니까? 스스로의 행동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합니까? 여러분은 임무를 완성과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고용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기쁘게 여러분 스스로와 협조하면서 일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동반자가 죽게 되면 그가 살아 있을 때처럼 그의 가족을 대하겠습니까? 만일 그가 건강을 잃는다면 그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관대하게 대하겠습니까? 자 다시 안팎을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스스로와 살기를 원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좀 심한 채점 카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전혀 남이라고 생각하여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